第7代 忠淸南道議會 前半期

李福求議長 演說文集

(2002年 7月 9日~2004年 7月 8日)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4904

忠淸南道議會

제7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이복구의장 연설문집

(2002년 7월 9일~2004년 7월 8일)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Provincial Council



충청권 3개시도 광역의회 신행정수도 추진 공조합의 (2003. 4. 14)



제54회 도민체전(2002. 10. 10)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장 이 · 취임식(2002. 11. 14)



김두관 행자부장관 래도(2003. 5. 23)



농어업 관련기관 단체장 토론회(2003. 9. 3)



제8회 충청남도 우수광고물 전시회(2003. 10. 22)



전국체전 참가 훈련선수단 격려(2002. 10. 29)



2003 을지 연습장 방문(2003. 8. 18)



제47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2003. 12. 4)



충남 역사문화원 개원 현판식(2004. 4. 19)

• 연구하는 의정활동 모습



충남도의회 의정연찬회 모습(2002. 9. 3)



충남도의회 의정연찬회 토론모습(2002. 9. 5)



지방정치와 정당워크샵(2003. 6. 20)



충청권3개시도 광역의회 신행정수도추진공조 합의(2003. 4. 14)



신행정수도이전 지원 충청권 광역의회 협의회(2003. 6. 23)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한 성명발표(2004. 6. 14)

• 활발한 국제 교류활동



호주 피터루이스 의장 일행 내방(2003. 9. 2)



중국 연변 조선자치주 방문(2003. 10. 8)



중국 하북성장 내방(2004. 4. 6)



중국 길림성장 내방(2004. 4. 22)

차 례

1. 개회사

제7대 도의회 출범 27

▸제161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7. 9

각오와 다짐의 첫걸음 32

▸제162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7. 18

정책 대안을 찾는 의회 36

▸163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8. 26

유비무환으로 재난 대비 40

▸제164회 정례회 개회사 · 2002. 9. 9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44

▸제165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9. 30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발전 48

▸제166회 정례회 개회사 · 2002. 11. 20

새해 의정운영의 첫장 53

▸제167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1. 20

새봄과 함께 희망을 59

▸제168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2. 26

도민위해 봉사해야 65
▸제169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4. 7

도의원은 도민을 위한 봉사자 72
▸제170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5. 1

나라안보와 경제안정 78
▸제171회 정례회 개회사 · 2003. 6. 25

충남을 동북아시대의 중심지로 85
▸제172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8. 25

뜻깊은 계룡시 출범 92
제173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10.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99
▸제174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11. 18

조화로운 건제와 균형 104
▸제175회 정례회 개회사 · 2003. 11. 20

참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108
▸제176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1. 27

100년만의 폭설 가슴아파 115
▸제177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3. 9

고속철시대의 개막 120
▸제178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4. 19

가정은 소중한 보금자리 124
▸ 제179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5. 13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당위성 127
▸ 제180회 정례회 개회사 · 2004. 6. 25

성원과 격려에 감사 131
▸ 제181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7. 8

2. 의회관련 행사

대화와 타협의 의정운영 137
▸제7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인사 · 2002. 7. 9

전국체전 3위, 200만 도민의 쾌거 139
▸2002년도 도의회 폐회연 인사 · 2002. 12. 20

의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141
▸2003년도 의정연찬회 · 2003. 5. 20

500만 충청권 역량을 결집해야 144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창립총회 · 2003. 5. 30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147
▸제2차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 2003. 6. 23

충청권의 도약을 위해 150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의정 워크숍 · 2003. 8. 25

사회 원로로서의 역할 기대 154
▸2003년도 충청남도 의정회 연찬회 · 2003. 11. 25

한해를 마무리하며 156
▸2003년도 충청남도의회 송년회 · 2003. 12 .19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의 역할 158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2004. 1. 28

3. 도민과 함께한 행사

[2002년 8월~12월]

푸른 희망의 농촌 163

▸2002 충남농민 전진대회 · 2002. 8. 12

우리들의 안전 지킴이 166

▸부석면 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 2002. 8. 28

궁도는 우리 전통의 얼 169

▸충청남도 남 · 여 친선 궁도대회 · 2002. 9. 12

생활체육인들의 잔치 한마당 172

▸제11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 2002. 9. 14

국가안보를 튼튼히 175

▸한국자유총연맹서산시지부 읍 · 면 · 동지도위원회 합동발대식 및 한마음 대회 · 2002. 9. 14

뜨거운 가슴과 청년정신 178

▸제33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및 제25회 영광의 충남인상 시상식 · 2002. 9. 28

경로 효친은 최고의 덕목 181

▸제6회 노인의 날 기념 만남의 장 · 2002. 10. 2

민주정치 발전은 여성과 함께 183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창립대회 · 2002. 10. 9

용기와 자신감의 삶 186
▸ 제23회 흰지팡이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 2002. 10. 11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189
▸ 심대평도지사 서산시민과의 대화 환영인사 · 2002. 10. 17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 192
▸ 제9회 우강면민 체육대회 · 2002. 10. 26

우리는 한가족 194
▸ 현대오일뱅크 노사화합 선포식 및 체육행사 · 2002. 10. 26

자연은 생명의 원천 196
▸ 2002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개막식 · 2002. 11. 1

지방분권은 이 시대의 소명 198
▸ 지방분권운동 대전 · 충남연대 창립식 및 대토론회 · 2002. 11. 5

충남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200
▸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 · 2002. 11. 7

젊은 열정은 조국의 미래 202
▸ 서산청년회의소 창립 32주년 및 특우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 2002. 11. 15

JC 특우회 우정의 한마당 204
▸ 제12차 충남지구 JC 특우회 우정의 날 · 2002. 11. 16

농업은 소중한 생명산업 206
▸제7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10회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 · 2002. 11. 16

통일을 위한 밑거름 209
▸남북화해 · 협력을 위한 충청남도대회 · 2002. 11. 22

충남체육의 저력 212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 · 2002. 11. 29

200만 도민이 드리는 영예로운 상 214
▸제46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 2002. 12. 21

인간과 자연은 생명공동체 216
▸환경21창립 1주년과 읍 · 면 · 동 발대식 · 2002. 12. 23

농촌 부흥과 여성농업인 218
▸여성농업인 학술세미나 · 2002. 12. 26

청년들의 역할 220
▸합덕청년연합회 13대 회장 이 · 취임식 · 2002. 12. 28

[2003년 1월~12월]

동문의 발전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225
▸재전 서산농공고 동문회 · 2003. 1. 10

교육은 스승존경 운동부터 227
▸충청남도 스승존경운동협의회 창립대회 · 2003. 1. 18

농업은 생명이며 미래산업 229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장 이 · 취임식 · 2003. 1. 21

생명을 지켜주는 숭고한 봉사 232
▸대한적십자사 서산시 인명구조대장 이 · 취임식 · 2003. 2. 8

행동하는 지성 235
▸대산청년회의소 창립 제11주년과 특우회 제5주년 기념식 · 2003. 2. 14

희망과 도전의 첫걸음 238
▸도립청양대학 제4회 학위수여식 · 2003. 2. 14

우리 사회와 JC 역할 241
▸충남지구 JC 제34대 지구회장 · 회장단 · 감사 취임식 · 2003. 2. 19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 사명 244
▸행정수도 이전 범 국민연대 창립총회 · 2003. 2. 19

지식과 창조의 시대 246
▸2003학년도 청양대학 입학식 · 2003. 3. 3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248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단 이 · 취임식 · 2003. 3. 3

신지식 농업경영을 위한 다짐 251
▸당진군농민회 2003년 영농 발대식 · 2003. 3. 6

무한 경쟁시대에 앞서가는 기업 254
▸주식회사 금강포장 준공식 · 2003. 3. 11

바른 삶 바른 사회 257
▸충청남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03년도 정기총회 · 2003. 3. 12

지역 소식과 정보의 샘 260
▸서해안신문 창간 2주년 기념식 · 2003. 3. 14

효는 행동의 근본 263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 2003. 3. 18

새마을운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266
▸충청남도새마을회장 이 · 취임식 · 2003. 3. 19

선진시민운동으로 재점화 269
▸선진문화시민실천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 · 2003. 3. 20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내고장 272
▸한국수난안전협회 서산시 인명구조대장 이 · 취임식 · 2003. 3. 21

의료와 보건정보의 중심 274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준공식 · 2003. 3. 28

창의적인 비전 제시를 기대 277
▸서산미래연구모임 창립총회 · 2003. 4. 10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280
▸제9회 대산읍민 체육대회 · 2003. 4. 13

화합을 다지는 열린 스포츠 282
▸제6회 충청남도 시 · 군, 읍 · 면 · 동 대항 게이트볼 대회 · 2003. 4. 13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금물 285
▸제2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2003. 4. 17

안전을 지키는 친근한 벗 288
▸제9회 서산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 2003. 4. 20

미래를 주도하는 항공우주산업 291
▸한서대학교 종합항공교육시설 기공식 · 2003. 4. 26

주민들의 건강 파수꾼 294
▸부석 보건지소 준공식 · 2003. 4. 30

이시대의 진정한 봉사자 296
▸제10대 대산읍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 2003. 5. 2

인재육성은 백년대계 298
▸2003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2003. 5. 6

마음을 열고 꿈을 안고 301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다짐대회 · 2003. 5. 7

모교와 고향발전 304
▸서산농공업고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 2003. 5. 10

생활속에 합기도 306
▸제4회 충청남도지사기 합기도 선수권대회 · 2003. 5. 11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308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남선수단 결단식 · 2003. 5. 13

교육은 나라의 장래를 밝히는 빛 311
▸제15회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식 · 2003. 5. 17

생활체육인의 잔치 한마당 314
▸제1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 · 2003. 5. 17

참교육 실현을 위한 큰 힘 317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 2003. 5. 19

희망과 용기로 어려움을 넘고 320
▸2003 충청남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 2003. 5. 27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 323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수도권본부 창립대회 · 2003. 5. 27

JC의 사명과 활동 326
▸제34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및 제26회 영광의 충남인상 시상식 · 2003. 5. 31

국민의 사랑받는 스포츠로 328
▸ 제18회 충청남도지사기 유도대회 및 제46회 충청남도회장기 유도대회 · 2003. 6. 5

연극은 무대위의 종합예술 330
▸ 제21회 전국연극제 개막식 · 2003. 6. 12

서산 명물 팔봉감자 332
▸ 제2회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 · 2003. 6. 14

지역 문화의 향기 335
▸ 제4회 안견예술제 개막식 · 2003. 6. 15

믿음과 열린사회의 지향 338
▸ 제9회 도의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2003. 6. 16

내일을 밝히는 교육의 힘 340
▸ 충청남도 초 · 중등학교장 생활지도 연수회 · 2003. 6. 18

국가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밑바탕 343
▸ 제50주년 반공의 날 기념 및 국가안보 결의대회 · 2003. 6. 18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346
▸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 워크샵 · 2003. 6. 20

배구는 신사의 경기 351
▸ 제15회 충청남도지사기 배구대회 · 2003. 6. 20

어려움 뒤편의 용기와 희망 353
▸제7회 농아인의 날 기념식 및 충청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 2003. 6. 23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356
▸서산 JC 창립 23주년 및 특우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 2003. 6. 27

이웃에 보다 큰 관심을 358
▸국제로타리 3620지구 부성로타리클럽 회장 이 · 취임식 · 2003. 6. 28

여성의 활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361
▸제8회 여성주간 기념 제2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 2003. 7. 4

한 장의 사진속에 예술혼이 가득 364
▸제33회 충청남도 사진대전 시상식 · 2003. 7. 5

농업인의 흥겨운 한마당 366
▸제14회 서산시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대회 · 2003. 7. 5

농업은 생명 산업 369
▸제8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 2003. 7. 30

희망의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372
▸충남새농민 연찬회 · 2003. 8. 5

숲에서 미래를 375
▸제12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 2003. 8. 12

농업기술의 메카 농업테크노파크 378
▸충남농업 테크노파크 설립 발기인 대회 · 2003. 8. 19

농업은 국가산업의 근본 381
▸민족농업 지키기 2003 충남농민 전진대회 2003. 8. 21

여성은 이 세상의 어머니 384
▸여성 도의 교실 2003. 8. 28

자유와 평화를 위한 다짐 386
▸청소년보호단 발대식 및 한마음 다짐대회 · 2003. 8. 28

새로운 농업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388
▸충남농민연대 출범식 · 2003. 8. 28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농업발전을 391
▸서산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 2003. 8. 28

자신감은 성공의 비결 394
▸한서대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2003. 8. 29

사랑과 봉사로 아름다운 사회를 396
▸제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워크샵 · 2003. 9. 3

발전적인 농정을 위해 399
▸도내 농민단체 간담회 · 2003. 9. 3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단결 403
▸제11회 생활체육도지사기 테니스 대회 · 2003. 9. 7

농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405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준공식 · 2003. 9. 25

과학 영농을 이끄는 수레바퀴 408
▸농기자재 유통센타 준공식 · 2003. 9. 25

지성과 열정의 여성정치인 411
▸통일 · 복지포럼 제3차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 2003. 9. 29

어르신의 가르침 414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 · 2003. 10. 2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 한마당 416
▸제5회 서산시민 체육대회 · 2003. 10. 3

주는 기쁨, 베푸는 사랑 418
▸제11회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 2003. 10. 7

충남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420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 2003. 10. 8

작은사랑 실천으로 밝은 사회를 422
▸2003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 2003. 10. 9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 424
▸제2회 충남보육인 한마음 대회 · 2003. 10. 18

도민의 힘과 정성을 하나로 427
▸ 제55회 도민체육대회 · 2003. 10. 22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사회 430
▸ 제24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 · 2003. 10. 24

충남 체육의 쾌거 433
▸ 제84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 2003. 10. 28

희망찬 새 삶을 위하여 435
▸ 2003 충청남도 자활한마당대회 · 2003. 10. 29

승부를 뛰어 넘는 화합과 우정의 마당 437
▸ 제3회 충청남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탁구대회 · 2003. 11. 2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 439
▸ 서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 · 2003. 11. 7

JC특우회원들의 우정 442
▸ 제13차 충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 2003. 11. 8

소방 파수꾼들의 잔칫날 444
▸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2003. 11. 8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도약 446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결의대회 · 2003. 11. 12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의 잔치 한마당 449
▸ 제3회 서산시 농업인 대회 · 2003. 11. 12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을파소 452
▸ 제2회 을파소상 시상식 · 2003. 11. 13

추억과 예술혼을 담는 사람들 455
▸ 제1회 충청남도 사진인의 밤 · 2003. 11. 15

권위 있고 긍지 높은 문화상 457
▸ 제47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 2003. 12. 4

농어업에 애정을 바친 사람들 460
▸ 제11회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 · 2003. 12. 6

작은 손길, 큰 희망 463
▸ 난치병 및 결식아동돕기 친선 골프대회 · 2003. 12. 12

자연 환경은 인간의 터전 465
▸ 환경 21창립 2주년 기념 및 환경대상 시상식 · 2003. 12. 18

유비무환의 자세로 화재예방 468
▸ 예산소방서 개서식 · 2003. 12. 20

행정수도 건설을 기약하며 471
▸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연대 송년의밤 · 2003. 12. 22

마을 사람들의 아늑한 사랑방 473
▸지곡면 무장3리 마을회관 준공식 · 2003. 12. 24

한가족 이웃 사촌 475
▸대산읍 화곡1리 마을회관 준공식 · 2003. 12. 26

대화와 여유의 공간 478
▸부석면 취평2리 마을회관 준공식 · 2003. 12. 27

[2004년 1월~6월]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한 해를 483
▸2004 천안상공회의소 신년 교례회 · 2004. 1. 5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485
▸2004 충남 여성계 신년 교례회 · 2004. 1. 5

농촌과 농업에도 희망을 488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회장단 이 · 취임식 · 2004. 1. 13

세계 평화는 인류의 소망 491
▸충청권지도자 초청 평화유엔활동 보고대회 · 2004. 1. 16

고품질 충남경영의 원년 493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 및 월드브랜드 선포식 · 2004. 1. 27

스스로 보람을 찾는 자원봉사 496
▸서산시 자원봉사협의회 재결성 · 2004. 2. 7

새로운 각오와 다짐 499
▸ 대산 JC창립 12주년 및 특우회창립 6주년 회장단 이 · 취임식 · 2004. 2. 9

삶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 502
▸ 당진소방서 개서식 · 2004. 2. 11

또 하나의 시작 505
▸ 청양대학 학위 수여식 · 2004. 2. 13

안전의식의 생활화 508
▸ 부석면 자율방범대장 이 · 취임식 · 2004. 2. 26

미래사회를 여는 선도자 511
▸ 충남지구 JC 회장단 이 · 취임식 · 2004. 2. 27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 514
▸ 2004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우승 환영식 · 2004. 3. 15

친목 도모와 권익신장을 기대 516
▸ 충남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3기 출범식 및 제4차 정기총회 · 2004. 3. 19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 519
▸ 제28회 대산친목단체연합회 체육대회 · 2004. 4. 18

편견없는 사회를 521
▸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2004. 4. 20

교육은 국가의 미래 524
▸사립 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임시총회 · 2004. 4. 23

우리 삶과 닮은 마라톤 526
▸제3회 서산 하프마라톤 대회 · 2004. 4. 25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 528
▸서산명지중학교 개교식 · 2004. 4. 29

바다처럼 큰 포부를 531
▸서산대진초등학교 개교식 · 2004. 4. 29

역사와 문화의 한마당 축제 533
▸제5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 2004. 5. 1

세계사를 좌우하는 지식과 정보 535
▸2004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2004. 5. 6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538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 2004. 5. 11

찬란한 백제문화 540
▸백제역사재현단지 능사 5층 목탑 탑지 봉안식 · 2004. 5. 13

스승과 제자의 만남 542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 2004. 5. 14

생활속의 문화체육 544
▸제13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문화 축제 · 2004. 5. 15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546
▸현대오일뱅크 청정연료사업 기공식 · 2004. 5. 17

이어지는 충남체육의 쾌거 548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 2004. 5. 17

요트에 푸른 꿈을 싣고 550
▸제4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2004. 5. 29

충남발전을 위해 빛을 남기고 552
▸충남발전연구원 제4대 오제직원장 퇴임식 · 2004. 5. 31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554
▸2004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004. 6. 9

세계속에 빛나는 충남 기능인 557
▸2004 충청남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 2004. 6. 9

밝고 건강한 지역의 파수꾼 559
▸동부지역 생활안정협의회 창립총회 · 2004. 6. 11

진취적인 기상과 청년정신 561
▸제35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 2004. 6. 12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 사회 563
▸서산시 방범가족 한마음 대회 · 2004. 6. 13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새마을 운동 565
▸2004 도의 새마을 운동 촉진대회 · 2004. 6. 18

다시 복원되는 생태계 567
▸2004년도 참게 종묘 방류행사 · 2004. 6. 19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569
▸제3회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축제 · 2004. 6. 1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571
▸서산와이즈맨 회장단 이 · 취임식 · 2004. 6. 26

경제를 위한 노력 573
▸경제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 · 2004. 6. 29

4. 국제교류 활동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577
▸한일 친선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 2003. 1. 22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동반자 579
▸충청남도 · 구마모토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 · 2003. 1. 23

우리는 가까운 이웃 582
▸구마모토현의회 주최 환영오찬 인사 · 2003. 1. 23

20년 지기의 친구 구마모토현 584
▸구마모토현지사 주최 환영만찬 인사 · 2003. 1. 23

세계는 하나 587
▸허베이성방문단 의장님 주최 환영오찬 · 2004. 4. 6

역사의 새로운 장 589
▸중국허베이성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 · 2004. 4. 6

1. 개 회 사

제7대 도의회 출범

▸ 제161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7. 9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각급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의 한 축(軸)을 담당할 제7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회 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에 남다른 경륜과 전문 식견을 쌓아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쌓아올린 지방자치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고, 21세기 성숙한 자치발전을 향한 의욕에 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도의회가 탄생한지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굴곡 많은 지방의회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롭게 미래를 열어 간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7대 도의회의 출범은 한 차원 높은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軸)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적 역할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결코 짧지 않은 연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 지방자치 그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퇴보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우리 역사와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지방의회는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을 다지는데 있어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의회는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11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우리 함께 이끌어 가야할 새로운 제7대 도의회는

첫째, 『견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존립 목적은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해도 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그 시책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화와 타협의 보다 성숙한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월드컵 축구경기를 통하여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벽이 어떻게 용해되고 통합되는지를 목격하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환경 속에는 사회·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목소리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큰 안목에서 볼 때, 주민복리와 도정발전을 추구하는 데에는 정당의 구분이나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라면, 궁극적으로 '도민 만족의 지방자치'는

반드시 거시적 시야를 갖고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상반되는 이해관계나 대립의 벽을 대화와 타협으로 용해시키고 공감의 대안을 뽑아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상 주민의 생활속에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곧 도의회의 의제이며 안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의정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고충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에도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NGO와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일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의정활동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다 높은 발전의정을 향하여 내실을 기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여러가지 법령과 제도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으로 도민의 여망에 최대한 부응해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도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안목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연구·연찬하는 자세로 시야를 넓혀 도민 편익을 위한 새로운 자치입법을 입안하는 등 열정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의 의정성과를 발판으로 다시한번 힘차게 도약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정치의 핵심인 동시에 도민 모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지역통합과 민의의 수렴창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진 도민에겐 용기를 북돋아 주고, 때로는 궂은 일에 앞장서는 훈훈한 인간애도 발휘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7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오와 다짐의 첫걸음

▸ 제162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7. 1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 제7대 도의회 첫 임시회 폐회 이후 6일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분한 휴식의 기간도 없이 연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름철 중에서 가장 무더운 삼복 기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념 하셔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7대 충청남도의회는 지난주 개원과 더불어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갈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에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최근,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난 5월부터 잠정 휴장되었던 도내 가축시장이 재 개장되어 양축농가 뿐만아니라 도민에게서 모처럼 환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제활동을 펼쳐주신 양축농가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양축농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제도라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을 위한 의회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를 통해 올바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1년 도의회 부활이래 우리 도민들의 바람과 다양한 의견들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도민들의 기대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되돌려 주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7대 의회 4년'은 지금까지 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 임시회는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실현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첫 달이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가 계획을 세우고 결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계획된 일들을 하나 하나 빈틈없이 점검하여 알차게 매듭지어야 할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결실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성과 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유감 없이 발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우리는 보다 발전된 의회, 도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도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시급을 요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서 사실상 처음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다루는 회기라는 의미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행정에 대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내용으로 심의·조정하여 알뜰하고 보람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여름철이면 예고없이 찾아 오는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태풍과 큰 비로 인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점검이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의안 한 건, 한 건마다 세심한 배려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대안을 찾는 의회

▸ 제163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8. 26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지만 아침 · 저녁으로 이는 서늘한 기운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 폐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月初 전국에 걸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복구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위로하며 한마음으로 수해복구에 힘써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비회기중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해는 지역적으로 엄청남 量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진데 1차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에 빈틈없이 대비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6·7월의 장마세력이 약화되는 대신에 8월의 강수량이 더 많아지는 이상 기후패턴을 보일 것이라 합니다.

환경과 기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호우피해에서 보았듯이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週에는 국가 차원의 전시 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을지연습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해준 관계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50여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지역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함께 발로 뛰면서, 그 속에서 정책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좋다』라는 말처럼 이번 제7대 의회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도민과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도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우피해에 대한 종합대책과 벼농사관리, 전염성 질병 예방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대안제시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비무환으로 재난 대비

▸ 제164회 정례회 개회사 · 2002. 9. 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164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분한 휴식기간도 없이 연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2박 3일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의정 연찬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현장을 찾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이준우 부의장께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8일

까지 동남아지역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지역간 우호교류와 경제협력 등 실리적인 외교활동과 함께, 투자무역상담과 농업투자기반구축 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신 노고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초 폭우 피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도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과 농수산 시설, 그리고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이어 수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준 도민과 軍·警,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신 이재민과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모금에 도민 모두가 흔쾌히 동참해 주는 등 도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훈훈한 미담은 충남인의 따뜻한 인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수재민들이 새 힘을 얻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 바삐 水災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막바지 병충해 방제 등 농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아까운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겪으면

서도 그때마다 운명으로 받아드리며 대처해온 우리의 지난날을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天災라 할지라도 有備無患 정신으로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수해의 시련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도내 각급학교에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전염성 눈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아울러 환자의 격리 등 확산방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 수해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수급 대책, 체불 노임 해소 등 추석맞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도와 교육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많은 정책대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심사는 다음해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에 시행착오가 있는지 철저한 확인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서 사실상 처음 갖는 정례회인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 제165회 임시회 개회사 · 2002. 9. 3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65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민생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당면한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태풍과 수해로 시련의 아픔을 주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사상 유례없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래 왔듯이 고난에 처하여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수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전 국민의 뜨거운 성원은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재민들에게 크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난 여름의 시련을 떨쳐 버리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할 막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을걷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벼 쓰러짐 피해와 벼알이 말라죽는 백수현상이 나타나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식량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나 농산물 생산이라는 의미 보다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의 민족산업인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가꿀 것인가 정부와 관계부서는 물론 도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때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의 거센 바람을 타고 있는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시행하는 등 개방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향악단 합동 연주회가 금강산과 평양에서 각각 열였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반세기 동안 닫혔던 비무장 지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남북 교통망의 연결은 단순히 분단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것 외에 새로운 화해·협력시대를 열고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인적·물적교류가 확산될 것이며, 남북한의 신뢰가 회복되어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남북한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 되고 상당한 물류비와 수송기간이 대폭적으로 절감되는 등 정치·군사적 화해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 차원의 대책도 미리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도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의결하고 민생과 관련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상정된 안건 한 건 한 건마다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발전

▸ 제166회 정례회 개회사 · 2002. 11. 2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례회를 맞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각 상임 위원회별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의정을 체험하는 등 의정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노선 관철을 위하여 인근 시 · 도의회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천안분기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참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종합 3위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충남 체육의 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쾌거인 동시에 도민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는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자랑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의 명예를 위해 선전분투 해주신 임원 선수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6일 실시되었던 200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아주 평온한 가운데 차질없이 치뤄 내신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2년도 40여일을 남겨놓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치·경제·사회 등 국내외적인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1년을 넘긴 오늘의 현실은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없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끼지 잘못 이어진 자치환경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지방행정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숱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중앙의 논리에 막혀 있습니다.

이와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일『지방분권 촉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이며, 지방차원의 의지를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출범한 제7대 우리 도의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도민의 입장에서 결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겸허이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운 성숙한 의정실현을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받아 들여 의정에 반영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내년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가 이뤄지는 1년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에 들어서 사실상 처음 실시하는 만큼,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심도 있고 실증적인 정책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민생해결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道의 적정한 재정판단과 사업의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도민의 피땀어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7대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한단계 성장될 수 있도록 이번 의정운영의 의지에 맞춰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입동을 지나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철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농수산 시설의 피해와 교통대책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겨울철 재해예방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보호시설 수용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겨울철 생활안정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학생들의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도 연말을 앞두고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 등에 매우 분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도민의 일원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의사일정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의정운영의 첫장

▸ 제167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1. 20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올해 의정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6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과 기대속에 계미년 새 해가 시작된지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 생산적인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의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의회가 "民意의 殿堂"으로써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참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03년은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제16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정부의 출범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이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적으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道의 경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계획은 새로운 충남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국토의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기를 살려서 희망과 활력의 충남시대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가경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자치제도하에서는 더 이상 국가경쟁력을 높여갈 수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일깨워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12년과 우리 7대 의회 2차 년도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성숙된 의회운영을 통해 대변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어느 해 보다도 자치도정의 견실한 동반·협력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정 연찬을 강화하고 연구·노력하는 자세로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의미가 부여된 올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는 다음 몇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중심이 되는『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의회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정의 순기와 처리안건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의안을 처리하며,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수준높은 선진의정을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해도 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그 시책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연구·연찬하는 자세로 시야를 넓혀 도민 편익을 위한 새로운 자치입법을 입안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NGO·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의회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생활속에『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곧 의회의 의제이며 안건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도민은 의정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하고, 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고충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데도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일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의정활동은 보다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하며,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다 발전적인 자치의정을 위하여『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여러가지 법령과 제도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으나, 한편으로 도민의 여망에 최대한 부응해 나가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화 욕구증대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불합리한 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의회장기발전과제를 토대로 하여 단계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등 발전의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0여년의 의정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알찬 의회였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시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한번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안건 한 건 한 건마다 깊이 있는 심의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봄과 함께 희망을

▸ 제168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2. 26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절기상으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목에 싹이 튼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지난 첫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한 어이없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는 지하철 사상 초유의 돌발 사고가 일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문명의 利器로서 안전성과 편리함을 주던 지하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국이 슬픔에 잠기고 있습니다.

최악의 참사로 인하여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는 대구 시민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哀悼의 뜻을 표하며 사태가 하루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무엇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道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한 순간에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이번 참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비극으로 언제 어디서나 재발이 가능한 사건임을 명심하여 우리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담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기주의와 적당주의를 불식시키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관철』을 위한 간담회와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신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관철

지원 특위와 농경위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온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어제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인 취임을 시작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새정부의 출범은 우리나라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방적으로도 행정수도의 이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어서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강한 의지와 함께 권한과 재정을 충분히 배분하고, 과도한 통제와 규제를 과감히 줄여나가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충남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만 도민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1년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뉴-라운드 출범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 농업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촌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십분 헤아려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3년도 추곡 약정 수매가를 2%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48년 양곡 수매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수매가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쌀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고『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최종안이 남아있습니다만, 어려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회생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농업발전의 기회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부서에서는 도민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연대하여 슬기로운 대비책을 마련하여 쌀시장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3월은 나무 심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산과 나무, 그리고 산촌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총면적의 53%가 산림인 우리 도에서도 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산림을 보다 가치있고 아름다운 자원으로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산불예방입니다.

지난해 청양과 예산지역에서 발생했던 산불피해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물론 동료의원께서도 '푸른 산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꾸는데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모아 함께 하고 있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했고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환경은 매우 절박하고 냉엄한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말은 바로 國富의 원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정책운영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발전적인 현명한 정책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앙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현안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자각과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 강조한 바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충남의 내일을 열어나가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조화와 협력의 토대 위에 우리가 이루어온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더욱 굳게 결속하여 밝은 충남, 세계속의 충남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의, 민생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 도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서 의안 한 건, 한 건마다 세심한 배려와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위해 봉사해야

▸ 제169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4. 7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 첫 달인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달은 농삿일을 비롯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여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정활동도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만큼 분주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려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민생 현안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농준비와 산불방지, 가축 전염병 방제활동,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등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道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은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마음 조리고 가슴아픈 일들이 많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1세기 첫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 전쟁 발발과 함께 지구촌 곳곳에서 反戰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도내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의 화재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미래의 체육 꿈나무로서 희망을 주던 학교 스포츠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다시 우리 기성인들의 안전의식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하여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하루 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에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어른의 책임을 느껴 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습훈련을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학교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순간에 축구 꿈나무를 잃은 이번 참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비극으로 언제 어디서나 재발이 가능한 사건임을 명심하여 우리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그나마 17명의 부상당한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운명을 달리한 6학년 어린이들의 희생정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가다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이라크 전쟁이 오늘로서 19일째를 맞으면서 세계정세와 경제 흐름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이 점차 장기전으로 예측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우리 道의 물가 상승률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곧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돼지 콜레라의 발병으로 양돈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비상방역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가축질병 청정화를 선언하고 방역과 예찰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가축 전염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불량환경 개선과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청정지역 지위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홍콩 등 동남아에서 발생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가 공포와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질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도 각종 전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초기대응에 늦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추진일정이 지난 3월말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발표되고, 최근에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충청권내 행정수도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내세워 행정수도의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하여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국가 경쟁력과 지방의 생존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이며,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는 역사적 사명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권 전체가 풀어야할 중차대한 공동 현안사항임을 직시하고 충청권 광역의회가 공동 대응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 추진되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씩 매듭을 풀어간다는 심정으로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출범이후 우리가 뜻을 모아 함께 손잡고 일해 온지도 어느덧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했고 도민들에

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 환경은 추호의 시행착오나 일말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는 절박하고 냉엄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봅니다.

따라서, 저와 의원 여러분은 도민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지위에 맞게 항상 모범을 보여야함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회를 향한 도민의 준엄한 질책에 대해 솔직·겸허한 자세로 받아드리면서 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가 더욱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 나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민생과 관련한 안건 심의, 그리고 각종 사업현장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했던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를 계기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산불발생과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심도있는 점검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원은 도민을 위한 봉사자

▸ 제170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5. 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내린 봄비로 산과 들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 그리고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안면도에서는 2002국제꽃박람회 개최1주년을 기념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통하여 우리 꽃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충남 화훼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서도 국내 화훼 및 관광산업 진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또 한번의 감동이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은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았던 한달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4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던 4. 24 재·보궐선거를 아주 평온한 가운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아산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재선거에서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광만 의원님께 진심어린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아산시의원 의원으로 다년간 활동하신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 열성을 다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20여년간 끌어오던 서산 AB지구 간척지 피해 농어업인들의 민원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농어업인들과 현대건설이 전향적으로 양보하고, 중재에 참여한 행정기관에서 인내하며 신뢰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사례에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종일관 신뢰와 원칙을 갖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민원해결의 첩경임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과 한달여 만에 종전되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함께 한 나라의 수도가 외세에 의해 함락되는 이번 이라크 전쟁을 지켜보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등 동남아에서 발생된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즉 사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사스 증세로 보이는 추정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스에 대한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2차 확산 방지와 추가 사스환자 유입 저지를 위하여 방역대책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도 모든 방역체제를 가동하여 철저한 대비와 함께 예상되는 여름철 수인성 질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성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스는 단순한 질병차원을 넘어 지구적 이슈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스의 충격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파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은 물론, 교역 및 금융거래,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중국·홍콩 등 중화권에 대한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스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 타격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단결과 화합된 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탄력을 유지하면서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왔습니다.

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도민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으며,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서 의정과 도정이 맡은바 사명을 다해 뒷받침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道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근 시·도의회와 공조하여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확정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내년 하반기 중에 확정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도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희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현안들이 국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마땅하지만 우리 충남은 앞을 내다보는 능동적인 행정처리로 대응태세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지난달 보성초등학교 사건이후 학교 정상화는 일단 이루어졌습니다만, 교단내부의 갈등이 대립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아 학교교육에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경우 오히려 교단의 분열현상을 촉발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하루속히 교단갈등이 치유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무엇보다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주시고, 아울러 대전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과 같은 여름철 질병예방과 학교위생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15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로써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촌음을 아껴 밀도 있는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은 대부분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도와 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道의 적정한 재정판단과 사업의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도민의 피땀어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전국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점검해 주시는 등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화합의 큰 틀 속에서 도민의 의지가 전향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더욱 분발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도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의사일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안보와 경제안정

▶ 제171회 정례회 개회사 · 2003. 6. 25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에도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지원을 위한 충청권광역의회 협의회를 결성하고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신 행정수도이전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 그리고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북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이번 장마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집중호우성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 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심히 우려되는 것은 풍수해와 안전사고, 그리고 각종 수인성 전염성의 발생입니다.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아까운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천재로 받아드리며 지내온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천재라 할지라도 유비무환 정신으로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道民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름철 재해와 방역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계룡시 설치 법률안과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조항 법률안이 전격 가결됨에 따라 우리의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률검토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룡시 설치는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숙원이 빛을 보게 된 것은 200만 도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발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국회 행자위에서 이 법률안이 가결되기까지 힘써 주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준비 기획단 설치 등 차질없는 市설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경제가 지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때, 불법 파업과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간의 이해와 갈등이 아무리 크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감안하여 도내 산업계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핵문제, 특검 등 남북관련 사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때, 지난 14일,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식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남북관계의 어려운 현실의 벽을 뚫고 민족교류와 역사적 상징성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바로 6.25 전쟁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 모두 호국보훈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몰아내고 『나라의 안보와 경제의 안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道의 공직자 여러분은 인본과 경영을 양대 軸으로 하여 희망의 충남시대를 향한 21세기 선진자치기반을 튼튼히 다져오면서 지역발전에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을 무리 없이 추진하면서 최근

에는 행정자치부의 2002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치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 여러분이 도민의 공동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발전하는 도정을 이루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현안사업들을 다시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도 지난 어려운 사건에서 벗어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지역교육 시책 보고회와 학교 운영위원 연수회를 갖는 등 교육 현안 해결과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셨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교육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하루속히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학교정상화와 교육공동체간의 화합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제7대의회 원구성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단계의 마무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초석을 다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의정활동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활동과 학술발표 등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는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난 12년의 의정경험을 발판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인의 자세를 견지하고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도와 교육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많은 정책대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결산의 심사는 예산편성 못지 않게 그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집행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 철저한 확인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의 디딤돌

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 속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을 동북아시대의 중심지로

▸ 제172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8. 25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직 무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날씨지만 절기상 처서가 지난 요즈음,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례회 폐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무더위를 무릅쓰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장마기간과 국지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동안 예기치 않은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 · 강원지역에서는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道는 지난 장마기간 금산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피해발생을 제외하고는 큰 재난없이 지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리며, 그동안 현장에서 한마음으로 수해복구에 힘써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금산지역 수해현장를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일조량이 부족한데다 각종 병충해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상순까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수방대책은 물론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週에는 국가차원의 전시대비 훈련인 『2003을지연습』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습은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그 어느 해 보다 짜임새 있는 도상연습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해준 관계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하반기 업무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인본과 경영을 양대軸으로하여 21세기 희망의 충남시대를 향한 자치기반을 든든히 다져오면서 도정발전에 진력해 왔습니다.

지난 14년간 도민의 여망에 힘입어 이룩한 계룡시 설치 확정을 비롯하여 제23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승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新행정수도 이전과 동북아 경제 중심지역 실현을 위한 『충남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수립중인 新국토관리전략에 우리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발전 전략을 토대로 우리 충남이 동북아 시대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道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도 우형식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참교육 실천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사건·사고와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충남 교육을 이끌어온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간의 교육행정을 되돌아보고 실추된 교육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가족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2학기 학사운영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 교육안정과 교육현안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갈등을 빚어왔던 교단을 안정시키고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우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괄목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공직자 여러분이 도민의 공동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는 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잘된 점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부진한 분야는 정밀하게 진단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도민과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3월 당진에서 발생하였던 돼지콜레라가 또다시 발생하여 축산농가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道에서는 가축질병 방지를 위하여 방역과 예찰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질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은 물론 청정지역 지위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道에서는 각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초기대응에 늦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대 도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지역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민과 함께 발로 뛰면서, 그 속에서 정책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단계의 마무리는 또다른 시작의 초석이 된다』는 말처럼 그동안 미흡했던 의정 활동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12년의 의정경험을 발판으로 다시한번 힘차게 도약해야 할 시점에 서있습니다.

21세기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은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국토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실무작업이 예선이었다면, 법안의 국회제출은 곧 본선의 관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 여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로 우리 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기로에 서 있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오늘 오후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의정 워크숍』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폭넓은 분위기 확산은 물론, 정부계획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안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특별법안 국회통과에 기여하는 등 큰 성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비롯하여 道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우리 고장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농정방향에 대한 간담회와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연장 건의안도 채택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 속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계룡시 출범

▸ 제173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10. 9

尊敬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풍과 수해로 시련의 고통을 주었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당면한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형식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흐트러짐 없이 당면한 2004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등 2학기 학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한 달 남짓한 비회기 중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남·동부지역에 뜻하지 않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큰 피해 없이 지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자연 앞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를 계기로 우리 道에서도 재난방지체계에 문제점은 없는가 되돌아보고 입체적인 재난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재난발생이 연례 행사처럼 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평상시 재난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국방의 중추도시인 계룡시가 우리 충남의 열여섯 번째 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합심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만큼, 낙후된 지역문화를 살리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로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계룡시가 선진국형 국방 모델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21세기형 다원적 도시로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은 올해로 일곱 번째 맞이한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굳이 통계를 인용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道 농어촌지역 대부분이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심각한 인구 불균형 현상과 여러가지 노인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노인복지 향상의 새로운 원년으로 정하고 각종 노인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책을 수립하여 고령 사회에 미리 대비하고 노년을 보다 편안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충남으로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을걷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잦은 비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금년도는 전국 쌀 생산량이 냉해가 극심했던 지난 80년 이후 23년만에, 재배면적당 생산량도 지난 93년이후 10년만에 최대 흉작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올해와 같은 잦은 비와 저온현상 등 기상이변이 쌀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따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압력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당혹해 하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우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며,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농정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나 농산물 생산이라는 의미 보다는 식량안보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우리 민족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민족산업인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가꿀 것인가 정부와 관계부서는 물론, 도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특별법안 국회제출 등 신행정수도 충청권 시대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지사께서 지난 7일, 정치권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선정 결과에 대하여 깨끗이 승복한다는 공동합의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충청권출신 국회의원들이 공개서약식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의회내 특위설치와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충청권 광역의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될 때까지 공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충청권이 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소 지역주의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한 차원 높였다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 특별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물론, 후보지가 확정될 때까지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공감을

얻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를 해야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연말을 앞두고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 등 매우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방자치의 주역임을 명심하여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민생과 관련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 한 건 한 건마다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에 있을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현장의 여론을 십분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보람찬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 제174회 임시회 개회사 · 2003. 11. 1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74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우리 道의 현안사항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등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그리고 道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심대평 도지사님과 송민구 농수산경제위원장께서는 세계 경제와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특히, 창작 오페라 이순신의 러시아 공연을 통한 문화홍보와

스페인 발렌시아주와의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은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와 경제통상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개척 활동을 통한 실리외교와 충남 문화예술의 역량제고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송민구 위원장을 비롯한 순방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道교육청에서도 지난 5일 도내 42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던 200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아주 평온한 가운데 차질없이 치루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행정을 빈틈없이 수행해주신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초·중등학교의 공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하며, 전인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획기적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학생들의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와 막바지 진학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막바지 가을걷이와 추곡수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잦은 비와 태풍, 그리고 세계적인 농업시장 개

방화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 흘리신 농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를 무난히 극복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이 만큼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농민 여러분의 노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벼농사 등 농작물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더욱 어려워진 농업과 농촌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산업화 정책과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급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더욱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지 않고서는 결코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역사의 뿌리이고 문화의 기반이며, 생명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개방에 대한 충격을 체질강화로 극복하고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정부서에서는 지난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과 농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道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개혁 입법안이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입법목적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 폐해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위한 법으로 곡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3대 개혁입법안을 적극 수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번 3대 특별법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집중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道가 먼저 20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무엇보다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도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모레부터 개회될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의정운영의 의지에 맞춰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도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이끌어 주시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 제175회 정례회 개회사 · 2003. 11. 2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75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위해서 각종 자료준비와 현장확인, 업무연찬 등 회의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이틀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다 차원 높은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그리고 道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도와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묻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여 도민이 원하는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지방자치에 저해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자치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방정치의 핵심인 동시에 도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민이 부여한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주어진 최대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일수록 도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선도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의원 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정운영 성과에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도민의 입장에서서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의정실현을 위해서는 의원여러분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동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겨울철 폭설, 강풍으로 인한 농수산 시설의 피해와 교통대책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겨울철 재해예방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보호시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계절적 실업 등으로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뒤따라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의, 그리고 민생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와 교육청에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경험과 민생현장에서 보고들은 사항을 십분활용하여 심도 있고 실증적인 정책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道의 전반적인 재정현실과 투자의 완급 등을 감안하여 모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방자치의 주역임을 명심하여 이번 정례회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현안사항이 산적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례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충남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 제176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1. 27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금년도 의회운영의 첫 章을 여는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인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道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충남이 더욱 도약하여 한국의 중심은 물론, 동북아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하여 기록적인 혹한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만, 우리 道에서는 일부지역의 수도관 동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가운데 지내게 되어 다행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대책수립과 비상근무 등 여러모로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비젼을 제시하며,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참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오는 4월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는 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道는 참여정부의 최대 핵심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새로운 충남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 희망과 활력의 충남시대를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후속조치가 계속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가경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과 집중의 자치제도하에서는 더 이상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권한 이양에 따른 완벽한 수용태세와 함께,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일깨워 가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7대 의회 3차 년도로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성숙한 의회운영에 충실하면서, 집행부의 견실한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00만 도민의 삶의 質 향상을 위해 의정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의미가 부여된 올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 몇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民意에 충실한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에 충실한 의회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도민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있어서도 道政의 순기와 처리안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의안을 처리해야 하며,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의회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선진의정을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그 시책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 편익을 위한 새로운 자치입법을 지속적으로 입안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學界는 물론, NGO ·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의회와의 교류 ·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의정운영으로 도민의 의정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도록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고충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데에도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일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의정활동은 보다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하며,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중단없는 『의회제도 개선 노력』으로 보다 발전적인 자치의정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법령과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도민의 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지난해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의회제도개선 여건이 어느 해 보다 성숙해졌다 하겠습니다.

특히, 분권·분산·분업 등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자치의정 실현을 위해서 단계별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등 의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0여년의 의정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알찬 의회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모두 정성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시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의안 한 건 한 건마다 깊이 있는 심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년만의 폭설 가슴아파

▸ 제177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3. 9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일에 내린 100년만의 때아닌 기습폭설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고 계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유래없는 미증유의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를 비롯한 과채류 · 과수 등의 시설하우스 피해와 인삼포해가림시설 · 양식어장 피해 등 우리 도내의 각종 피해액이 2천6백3십억원에 이르는 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최대의 위기를 안겨주었던 조류독감 피해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 더욱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자유무역국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남미에 무역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수출 진흥을 기하려는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지만, 한·칠레 FTA협정 체결에 따른 국회비준으로 인해 과수농가를 비롯한 농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던차에 이러한 재해까지 겪게되어 더욱 시름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농민들은 조류독감 피해, 한·칠레 FTA비준에 따른 불안감과 이번의 폭설피해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 폭설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분들이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 전역에 걸친 엄청난 피해를 감안하여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피해상황과 대책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겠으며, 집행부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새 봄이 오고 있지만 농민들은 시름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합리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닭고기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서고, 과일·채소 농가에 대해 향후 7년간 1천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한·칠레 FTA 비준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하고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책, 더 좋은 시책들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폭설과 관련한 도로정비와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는 인체의 동맥과 같은 것입니다.

도로가 막히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됨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본인은 이번 폭설 피해를 고속도로상에서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중앙정부의 도로관리 능력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꼼짝 달싹도 하지 못하고 밤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고속도로에 대한 차량진입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상에 갇힌 차량들의 탈출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안내도 없었습니다.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한 회차 조치나,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진입 안내조치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생한 사람들에게 위로는 커녕 요금이나 거둬 들이려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공직자들은 이러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 관내 도로 관리는 물론 교통소통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 안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골재·철근 등 건설기자재 품귀 현상에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약속한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약속이 이제 계획실천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 예정지 지정등과 관련하여 지방차원의 지원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서라도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관련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일간 짧은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위주의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의되는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께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속철시대의 개막

▸ 제178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4. 19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의 정취를 더해가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사상 유래없는 폭설 피해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간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에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총선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4월 1일에는 한국형 고속철도가 경부와 호남선에서 개통되어 전국이 본격적인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92년 당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서 기공식을 가진 이래 12년만의 대역사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 시대를 연 것입니다.

고속철 개통은 우리지역이 서울의 통근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과 기업 이전 등이 촉진될 것이며, 관광·레저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 경제와 문화, 사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모두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새롭게 실감나는 개방과 협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난 6일에는 중국 하북성 대표단이 우리도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회와 중국 하북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간 우호교류 협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와 중국 하북성간에는 이미 '94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동안 양도·성간 인적, 물적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양 지역 의회간 우호교류협정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나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큰 사고 없이 치뤄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민의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4. 15 총선도 그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다듬고 다시 일상의 생활속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갈등과 대립, 불신과 반목은 깨끗이 씻어버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년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때마침 내일이 24절기중의 하나인 곡우입니다.

예로부터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위해 볍씨를 담그는 등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풍년농사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의 아쉽고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과 세심한 준비를 통해 올해에도 대풍을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조례안 심의와 상임위원회소관별 당면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보는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봄철이면 중국의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은 소중한 보금자리

▸ 제179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5. 13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른 5월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오늘,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돌아보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에는 우리 도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도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 왔습니다.

가정은 생활속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처이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싹트는 정겹고 소중한 보금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은 우리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단위로서 집안에서 배운 예의범절이 사회질서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고, 어린이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5월은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도에서는 내실 있는 영농시책의 추진과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50여년의 의정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주요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자주 조직권과 재정권을 확충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숱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동반자적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도청과 교육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비롯하여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의, 당면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당위성

▸ 제180회 정례회 개회사 · 2004. 6. 25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강동복 의원께 진심어린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실천의 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늘 개회식에 참관한 공주 덕암초등학교 학생여러분과 인솔 선생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하여 때이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에는 신행정수도가 들어서게 될 후보지 4곳이 공식 발표된바 있습니다만, 천안, 공주 · 논산, 공주 · 연기 등 우리 충남지역 3곳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정치권 일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하여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4일에는 우리 도의회 주관하에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시·도 의회가 긴밀한 협조속에 공동대응키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적법하게 결정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충청권에 반드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시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지난 2002년에 출범했던 제7대 전반기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실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숙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정성을 쏟으며 많은 일들을 해왔던 2년이었다고 회고해 봅니다

민의에 부응하는 변화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신뢰받는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원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미진함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총19회 246일간의 회기동안 292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그중 110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특위를 설치하여 충청권의회가 공조하는데 이를 주도했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계룡시 설치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발전과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일후면 충남 교육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충청남도 교육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성, 교육정책에 넓은 식견과 소신을 갖춘 탁월하신 교육감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2세들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참 일꾼이 선출되도록 도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민생관련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생해결과 지역발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하지를 지나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태풍을 동반한 장마와 식중독, 전염병 등 질병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철저한 하절기 방역 활동과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위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의정 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과 격려에 감사

▸ 제181회 임시회 개회사 · 2004. 7. 8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 정례회 폐회이후 3일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달 말 실시된 제4대 충청남도 교육감선거가 큰 사건 사고 없이 원만하게 치러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도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지난 2002년에 출발했던 제7대 도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20회 257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하여 309건의 민생 현안을 처리했고 그중 117건의 조례안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장애극복상 조례는 전국 최초로 위원회 발의로 제정함으로써 도내 6만 8천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하여 자치의정에 대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충청권 광역의회간 공조를 우리 도의회가 주도해 왔으며, 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해서도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사상 유래없는 폭설 피해로 도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피해현장을 찾아 도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반기 도의회를 무리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고 자치의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회기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원 구성이 200만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새 출발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원만한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어제가 마침 절기상으로 소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제7대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더 큰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관련 행사

대화와 타협의 의정운영

▸ 제7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인사 · 2002. 7. 9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경륜과 능력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제7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절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금 제7대 도의회 의장에 당선됐다는 기쁨보다도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에 직면하면서 그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21세기 세계화 ·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은 아직도 고쳐져야할 제도와 관행이 상존해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치의정에 대한 기대치는 해마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품과 덕망이 높으신 동료 의원여러분이 계시기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이곳 民意의 殿堂에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항상 도민본위의 의정을 구현하고, 감시와 견제,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간에 더욱 뜨거운 동지애로서 이해와 결속을 다져 의정발전을 주도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고전에 의하면, "끝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신중을 기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첫 등단을 하면서 다짐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제7대 도의회는 의석분포가 다양해진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일에는 정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충남발전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화합을 이뤄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새로운 의회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체전 3위, 200만 도민의 쾌거

▸ 2002년도 도의회 폐회연 인사 · 2002. 12. 2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多事多難 했던 壬午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제7대 의회 1차년도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제일의 자치도정과 교육행정을 표방하며, 200만 도민을 위해 헌신 · 봉사해 오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道 자치의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은 우리 道에 있어 실로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전국체전 종합 3위 입상은 200만 도민의 의연한 기상과 저력을 대내외에 보여준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실은 곧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癸未年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굳건한 의지로 한단계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뜻을 모으고, 가슴 벅찬 『충남의 새날』을 함께 열어 나갑시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촐한 자리입니다만, 즐겁고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 2003년도 의정연찬회 · 2003. 5. 20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첫 번째 의정 연찬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제170회 임시회를 원만히 이끌어 주시고 충분한 휴식 기간도 없이 이번 연찬회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의정 연찬회 운영을 맡아주신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님과 빈틈없는 연찬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준 의회사무처 이인화 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특강을 맡아 주신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님,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7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어느덧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 복지증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한 차원 성숙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평소, 우리의회가 충남발전의 한 축으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동반자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찬을 통한 자기계발과 전문화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의안심사요령, 행정사무감사제도 등과 관련한 깊이 있는 연찬이 이뤄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이러한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자치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의식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발전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열어갈 이 시대는 『세계화의 시대』인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지방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대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합된 힘으로 도민의 의지가 실현되고,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이번 연찬회가 의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고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간 바쁜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간 나누지 못한 정담을 나누는 뜻있는 시간이 되시고, 다가오는 정례회도 대비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연찬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500만 충청권 역량을 결집해야

▸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창립총회 · 2003. 5. 30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4일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가졌던 신행정수도 건설촉진을 위한 『충청권광역의회의장공동합의』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셨던 대전시의회 이은규 의장님과 충북도의회 유주열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우리 충청권 3개 시·도가 함께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공동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될 때까지 긴밀한 공동보조와 함께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의회 이은규 의장님, 충북도의회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지원을 위한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창립총회가 개최되기까지 힘써주신 대전·충북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로소 우리 충청권 3개 시·도의회는 지난 4월 행정수도 건설 촉진을 위한 충청권 광역의회의장 공동합의문 발표이후 46일만에 충청권 광역의회협의회를 구성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우리의 행보를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국가적 정책이슈로 부각되었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여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삼은 이유는 바로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 체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첩경인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한 목소리를 꾸준히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대와 달리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공조의 틀을 확고히 하며, 소지역주의적 갈등구조를 타파하고 폭넓은 교류와 협력활동을 적극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의 구심점은 바로 500만 충청권 주민의 대표인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조직이 완료된 가운데 갖는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의 출범은 500만 충청권 주민들의 역량이 한데 모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창립총회를 계기로 3개 시·도의회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전담 특위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북의회 유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 제2차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 2003. 6. 23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이은규 의장님, 충북도의회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은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써주신 행정수도 이전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우리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행정수도 이전에 뜻을 모아 공조하기로 합의한지 오늘로써 꼭 77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과 아울러 이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전담 특위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행정수도 이전 지원을

위한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창립함으로써 우리의 행보를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곳에서 채택하게 될 공동 건의문은 이미 우리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결정한 사항으로 500만 충청인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 조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 건의문이 채택되기까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뜻과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공조를 흩트리지 말고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으로 가는 첩경인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충청권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충청권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언론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촉구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우리 3개 시·도의회가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전담 특위 활동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전광역시의회 이은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의 도약을 위해

▸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의정 워크숍 · 2003. 8. 25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전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 현안이자 500만 충청권 주민의 염원인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의정 워크숍』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후원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행정수도 이전범국민연대 이호일 공동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회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실 김재현 · 이창기 · 육동일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이인혁 도시정책포럼 대표님, 신희권 교수님, 허용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기획홍보팀장님,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한복룡 · 최정석 · 이영애 교수님과 임순철 대전일보 업무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이처럼 형성되고, 오늘 이 의정 워크숍이 개최되기까지는 여기계신 내빈 여러분과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지난 대선공약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선을 넘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충청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구의 반이 집중된 수도권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공동현안입니다.

또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가 집적된 단핵구조로는 사회전반에 부작용을 양산시키고, 지방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지방의 생존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는 역사적 사명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상적으로 착수되기 위해

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정치상황과 여·야간 대립 분위기로 볼때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道에서는 충청권 3개 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여건 조성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에서도 순수 민간기구로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한 연대 공조에 뜻을 같이 하는 등 큰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난 4월, 충청권의 3개 시·도의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수도 충청권 조기 이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의회내 특위 설치와 신행정수도건설지원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구성 등 新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될 때까지 공동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가 충청권에서만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중대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별조치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남은 3개월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진퇴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지금은 의회와 충청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힘을 모아 이번 특별조치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물론 충청권이 국토발전과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의정 워크숍이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성공적인 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하고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원로로서의 역할 기대

▸ 2003년도 충청남도 의정회 연찬회 · 2003. 11. 25

존경하는 충청남도 의정회 이종수 회장님과 역대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2003년 충청남도 의정회 연찬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7대 의회가 개원한지 두 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기 중에 있습니다만, 선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정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며, 지방

자치에 저해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자치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도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결코 투사나 큰 목소리만 내는 정치인이 아니라 도민의 아픔을 대변하며, 민생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반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은 몇몇 사람의 의지로만 될 수 없으며, 도민의 뜻을 져버리고 추진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 주시고 올바른 도정과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대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의 원로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실 때, 우리 현역 의원들은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에 힘입어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도민들도 크게 기뻐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거듭 선배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처럼 모이신 자리인 만큼, 그간의 회포도 푸시고,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큰 결실을 거두는 연찬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의정회가 더욱 발전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항상 강령하시고 가정에 늘 웃음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 2003년도 충청남도의회 송년회 · 2003. 12. 1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계미년도 이제, 보람과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7대 도의회 2차년도 모든 의사일정이 끝을 맺는 오늘, 조촐하나마 송년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제일의 자치도정과 교육행정을 표방하며, 200만 도민을 위해 헌신 · 봉사해 오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느꼈다시피, 정치적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큰 격변을 가져왔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도정과 의회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하고 사명감 있는 의정활동이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의 강도 높은 견제와 감시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뜻을 같이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곧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 열 이틀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甲申年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송년모임이 한 해 동안 쌓였던 무거운 마음을 훌훌 털어 버리고, 갑신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발전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조촐한 자리입니다만, 격의 없는 대화로 송년의 의미를 나누시고 즐겁고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의 역할

▶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2004. 1. 28

존경하는 박주웅 전국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님.

그리고 각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갑신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늘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 여러분께서는 자치의정의 기틀을 다지고, 광역의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본 협의회를 통하여 시 · 도 의회간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지혜를 모아오신 운영위원장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의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회운영을 이끌어

옴으로써 선진 지방의회상을 구현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희망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써 지방행정의 감시자,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법령은 조례의 법률 구속성 내지 조례에 대한 법률 우위를 밝히고 있어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상당부분 제한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법률이 지방자치에 대하여 지나치게 규제하고 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통해서 다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 발전과 새로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화의 좌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주신 운영위원장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머무시는 동안 평안하시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도민과 함께한 행사

2002년 8월~12월

푸른 희망의 농촌

▸ 2002 충남농민 전진대회 · 2002. 8. 12

존경하는 충청남도 농민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 道 농민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리 농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2002 충남농민 전진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청남도연맹 최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 농민운동은 이 땅에 어려운 위기가 처했을 때 민족의 정기를 곧추 세웠고, 실의에 빠졌던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많은 농민회원들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눈부신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농촌문제를 풀어가며,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촌을 지키면서 "21세기 푸른 희망의 농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발자취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민회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중국산 마늘수입 자유화 협상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한 案대로 중국산 마늘 수입이 전면 자유화 될 경우, 우리의 마늘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정부가 소홀히 다뤘다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업과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2006년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농업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황량한 벌판에서 추위에 떨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종이던 자신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그야말로 생명산업이고 미래산업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능히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우리 농촌을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쌓은 지난날의 소중한 경험과 하면 된다는 신념,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농촌의 주역인 농민회원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의『전진대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농업이 개방화와 무한경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은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根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전진대회가 농업과 농촌발전을 향한 여러분의 열화같은 의지를 새로이 다지고, 범 농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뜻 깊은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농민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안전 지킴이

▸ 부석면 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 2002. 8. 28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부석면 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소방대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재해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솔선 헌신해 오시다가 이번에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강창규] 의용소방대장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취임하시는 [최종열] 신임 의용소방대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취임을 계기로 부석의용소방대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석면 의용소방대 가족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석의용소방대는 오래 전부터 마을은 물론,

우리 주변의 생활 안전을 지켜온 친근한 벗입니다.

119로 상징되는 소방 서비스는, 이제 화재 진압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주민의 "안전 지킴이"가 되고 있다 있습니다.

365일, 언제 어디서나 주민의 곁에는 바로 우리 의용소방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 보지 않고 크고 작은 화재나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소방대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촌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고 유형도 더욱 다양화 ·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재난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지름길도 바로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대원간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우리 모두가 사고의 감시자가 되어 재난 없는 고장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성실한 불침번이 되어주시는 부석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부석면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궁도는 우리 전통의 얼

▸ 충청남도 남·여 친선 궁도대회 · 2002. 9. 12

오늘,"瑞寧亭 開場을 기념하여 충청남도 남·여친선 궁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처럼 훌륭한 궁도장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산시궁도협회 김종선 회장님, 서령정 신무길 사두님, 그리고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궁도인 여러분!

오늘 서령정의 개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인 궁도의 발전과 보급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궁도의 맥을 이어 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궁도는 우리 전통의 얼을 가장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또한, 스포츠로서의 가치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생활의 재충전과 활력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친근한 레저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적·육체적인 피로와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힘의 源泉은 바로 "운동의 생활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궁도는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손을 맞잡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전통스포츠로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그동안 우리 도민 모두에게 큰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道가 지난해 제82회 전국체전 개최이후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스포츠道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곳 서산시는 오는 10월에 개최될 제54회 도민체전이 열리는 저력있는 도시입니다.

종합운동장과 더불어 건설된 서령정은 도민체전 개최지로써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 전국체전을 통하여 확인한 도전정신과 불퇴전의 저력을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서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200만 도민의 굳건한 단합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대열로 도약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도내 남·여 궁도인이 함께 모여 대회를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가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도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 道의 궁도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키고, 弓道人 상호간의 우의와 결속을 굳게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령정의 개장과 이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궁도인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잔치 한마당

▸ 제11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 2002. 9. 14

존경하는 충청남도 생활체육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11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최희택] 회장님, 서산시 생활체육협의회 [강춘식] 회장님, 그리고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賞을 받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로 열 한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할 수록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도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튼튼한 체력과 건강이 밑받침되어야만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밝은 사회도 이룰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스스로 참여하여 즐기는 가운데 장소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은 물론 이웃과 서로 화합을 다지는 "열린 스포츠"입니다.

정신적·육체적인 피로와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운동의 생활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생활체육 가족여러분!

스포츠는 그 동안 우리 도민 모두에게 큰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道가 지난해 전국체전 개최이후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스포츠道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서산시는 오는 10월에 개최될 제54회 도민체전이 열리는 도시입니다.

종합운동장과 더불어 건설된 각종 체육시설은 도민체전 개최지로써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하여 생활체육이 국민 생활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승부를 뛰어 넘어 親交의 場으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도민 건강과 화합에 기여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 한국자유총연맹서산시지부 읍·면·동지도위원회 합동발대식 및 한마음 대회 · 2002. 9. 14

존경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 읍·면·동 지도위원회 합동발대식 및 한마음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안보 의지의 정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 [정진국]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의 안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유총연맹 가족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15일 제57주년 광복절을 보내면서 자유와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감격이 끝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南과 北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는 혈육간에도 자유스럽게 오고 가지 못하는 이산의 아픔을 안고 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만의 아픔이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세기 냉전체제의 아픔을 통하여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없이는 자유, 번영, 평화 등 우리가 염원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민주국가를 건설해냈습니다.

2년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南과 北은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물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색되었던 남과 북이 지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8. 15민족통일 대회를 함께 했고 아시안게임과 이산가족상봉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 등에서 우리는 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南과 北의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협력과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감정 보다는 실익에 바탕을 두고 대결이 아닌 相生의 전략을 추구하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 속의 안보단체로써 안보의식을 크게 일깨우고 대북 경각심을 한층 더 고취시키는데 앞장서 온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가 주관한 오늘의 이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지향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족화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우의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모두가 단합하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청년정신

▸ 제33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및 제25회 영광의 충남인상 시상식 · 2002. 9. 28

존경하는 충남지구 JC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33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및 제25회 영광의 충남인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새로운 청년문화 창조에 앞장서 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남지구청년회의소 [김태호] 지구회장님과 장항청년회의소 [최낙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로운『영광의 충남인 상』수상자 여러분과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정성으로 내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JC회원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雄志를 갖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정을 바쳐 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갈채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활동은 200만 도민의 삶속에 파고들어 우리 충남이 각 분야에서 골고루 도약하며, 새로운『희망의 땅』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대회는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뜻을 모두어가는 자리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와 경제 발전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신적 변화가 이에 뒤따르지 못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민간부분의 사회적 활동이 취약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사회발전의 구심체가 없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희망차고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젊은 주역인 JC회원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젊음" 그 자체이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암울했던 시절,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불의와 맞서

싸우고 한민족의 역사를 꾸려온 동력은 바로 "청년정신"이었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로 나가는 일에는 JC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과 청년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살고 싶은 고장, 더불어 사는 사회』는 더욱 빨리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33차 충남지구 JC회원 대회가 여러분의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한마당 화합의 큰 잔치가 되고,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져『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남지구 JC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로 효친은 최고의 덕목

▸ 제6회 노인의 날 기념 만남의 장 · 2002. 10. 2

尊敬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6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들과 만남의 場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며, 그 동안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힘써오신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노인활동과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관련 단체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어르신을 공경하고 정성으로 모시는 敬老孝親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 왔습니다.

옛 선현들은 "孝"를 가리켜 모든 행동의 根本이라고 하였습니다.

孝道가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모든 德과 行實의 기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는 생활문화와 윤리적 가치의식의 변화로 인해 敬老孝親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핵가족화로 변화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은 무너지고 부모를 모시는 풍습도 변모하는 등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의가 어르신들의 세대와는 너무나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사회의 원로이신 어르신의 고명하신 가르침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전도된 사회적 타락은 오르지 인생의 역정을 터득하신 어르신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서만 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미래를 내다보는 慧眼으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어르신들의 만년도 풍요롭게 즐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큰 위안이 되시고, 심신의 활력을 회복하시는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조규선 서산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치 발전은 여성과 함께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창립대회 · 2002. 10. 9

오늘,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참여정치를 모색하는 『21세기 여성정치연합충청남도지부』가 창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성정치연합도지부의 창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옥경]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道지부가 이처럼 도민의 기대속에 출범하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님, [조선형] 공동대표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정치 지도자 여러분!

그 동안 우리사회가 가부장적인 문화의 지배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에 많은 장애를 받아 왔음에도 최근 들어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놀랄만한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여성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등 실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성의 사회참여나 능력 발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안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직관력, 그리고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평등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는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야 말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더욱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성정치 지도자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 한 차원 성숙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여성정치연합의 창립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치 지도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우리 지역 여성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정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용기와 자신감의 삶

▸ 제23회 흰지팡이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 2002. 10. 11

오늘, 제23회 흰 지팡이 날을 기념하는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도지부 [임대원]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 오신 가족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각장애인 복지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더 이상 사회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불편한데도 밝고 보람찬 삶을 영위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三重苦의 聖女』라고 불리는 미국의 헬렌켈러의 生涯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에서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자문협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실례는 우리에게 신체적 장애가 결코 능력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와 집념으로 인류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또 다른 도전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여러분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발전에도 크게 공헌하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장애는 결코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 심대평도지사 서산시민과의 대화 환영인사 · 2002. 10. 17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서산시를 방문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 충남도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민선 1, 2기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이끌어 오신 7년간의 도정은 人本과 經營行政을 兩大 軸으로 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켰으며, 도내 전역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98년도 IMF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하였던 제6대 도의회와 민선 2기의 도정은 충남발전이라는 命題앞에서 수레의 兩 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뤄가며,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道政史上 종합우승의 금자탑을 세운 제82회 전국체전과 올해 170만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道가 세계속의 충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 서산시 史上 처음으로 개최한 제54회 道民體典은 15만 서산시민들에게 자긍심은 물론,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애향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도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한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의 성과는 곧 의회의 성과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으며, 우리가 염원하는 충남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열어 가야할 민선 3기와 제7대 도의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힘찬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야 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의 애로와 숙원사업에 대하여 소상

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기하고, 15만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산시를 방문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

▸ 제9회 우강면민 체육대회 · 2002. 10. 26

존경하는 우강면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건강하고 활기찬 우강면 건설을 위한『면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주신 우강면 체육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 체육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면민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튼튼한 체력과 건강이 밑받침되어야만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밝고 희망찬 사회도 이룰 수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는 자칫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

니다.

특히, 육체적인 피로와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힘의 源泉은 바로 "운동의 생활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강면민 여러분!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장을 지켜오신 여러분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굳건한 단합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1세기 서해안시대 선진 대열에 도약하는 일은 면민 여러분의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面內 17개 부락이 함께 모여 이 대회를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면민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우강면의 체육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面民間의 우의와 결속을 굳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면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가족

▸ 현대오일뱅크 노사화합 선포식 및 체육행사 · 2002. 10. 26

오늘, 우리 서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지역 기업, 현대오일뱅크가 勞使和合 宣布式과 體育行事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서영태] 사장님, [김경태]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오일뱅크는 우리 국가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필수 원동력인 유류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현대오일뱅크 가족 여러분들의 값진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그 노고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국가산업의 比較優位를 유지하고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단순한 유류공급시설이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勞使間의 화합과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勞使는 수레의 兩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할 때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하고, 노동자들이 소망하는 일도 한층 더 빨리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하는 동시에 우의와 결속을 굳게 하는 아주 소중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항상 알찬 기업경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시는 현대오일뱅크 가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은 생명의 원천

▸ 2002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개막식 · 2002. 11. 1

오늘, 철새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2002 서산천수만 철새 기행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규선] 서산시장님, 천수만 철새축제추진위원회 [김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산업화가 진전됨과 비례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루는 자연은 생명의 원천이자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시각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시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땅 위에 있는 자원을 아끼고 그 곳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비전도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 친화적인 여건을 확고히 정착시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무한정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공공재산임을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간월도는 자연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터전이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독특한 철새 도래지로서 기대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이곳은 어느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철새를 보려면 간월도에 가야한다는 전통을 만들어 내고, 이곳을 찾아온 모든 관광객들에게 살아 숨쉬는 신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천수만 철새 기행전』을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지역의 관광산업이 한데 결합된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은 이 시대의 소명

▸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창립식 및 대토론회 · 2002. 11. 5

오늘,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창립식 및 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를 결성하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주일, 이명남, 조연상 상임공동대표님, 안성호 상임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남다른 애정으로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만족의 지방자치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며, 우리의 염원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例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행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방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 자주적인 활동은 중앙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中央과 地方의 協力』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증대를 통해 책임정치의 구현뿐만 아니라 無限競爭時代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분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 관한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자율적인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중앙의 많은 업무도 지방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한은 동시에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한이양에 대한 수용능력을 배양해야하며, 새로운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의 창립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지방의 자치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 · 2002. 11. 7

친애하는 임원 ·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체육가족과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필승의 신념을 다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刻苦의 노력으로 선수들을 지도해 주신 지도자와 체육계 인사 여러분, 그리고 불굴의 투지로 강도 높은 훈련을 쌓고,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선수단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성원을 보냅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께서는 이 순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기량 향상을 위해 밤낮을 잊고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꽃피울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다는 自信과 可能性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道가 체전 출전사상 종합우승이라는 偉業을 달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수단 여러분이 이번 체전에서도 지난해 우리가 이룩했던『우승의 영광』을 재현하여 충남인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가 경기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도민의 여망에 보답코자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이제 알찬 열매를 맺어 줄 것입니다.

경기 도중 어려울 때마다 도민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신다면, 역경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우승의 낭보가 전해질 때 200만 도민 모두는 뜨겁게 환호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善戰과 健鬪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젊은 열정은 조국의 미래

▸ 서산청년회의소 창립 32주년 및 특우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 2002. 11. 15

오늘, 『서산청년회의소 창립 32주년과 특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새로운 청년문화 창조에 앞장서 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산청년회의소 강신욱 회장님과 특우회 김상근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정성으로 내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숭고한 JC이념을 바탕으로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회원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 동안 헌신적인 참여와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지역사회 개발과 지도역량 개발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JC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음" 그 자체이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끓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암울했던 시절, 우리 지역이 낳은 우보 민태원 선생은 그의 수필『청춘예찬』에서 인류의 역사를 꾸려온 동력은 바로 "청춘의 끓는 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15만 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온 힘을 合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 서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풍요로운 고장, 새롭게 도약하는 서산JC"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JC회원과 특우회원 여러분의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헌신과 봉사의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져『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서산청년회의소와 특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C 특우회 우정의 한마당

▸ 제12차 충남지구 JC 특우회 우정의 날 · 2002. 11. 16

늘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시는 충남지구 JC

특우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12차 충남지구 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새로운 JC문화 창조에 앞장서 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남지구 JC특우회 이상정 회장님, 김재환 집행위원장임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 진력하는 JC특우회원 여러분이야말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요, 우리 충남을 빛나게 하는 역군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도 성장의 부산물로 자라난 많은 병폐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혀 왔으며, 소외계층의 삶에 대한 의욕을 저해시키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나친 경쟁과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솔선함으로서 오늘의 건전한 사회풍토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내일의 건강한 사회건설을 자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200만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 "희망차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륜과 이상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 무대로 나서는데는 바로 여러분의 힘찬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화합하는 忠南, 하나되는 JC"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우정의 날 행사가 특우회원 여러분의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헌신과 봉사의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져 『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충남지구 JC특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은 소중한 생명산업

▸ 제7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10회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 · 2002. 11. 16

오늘, 우리道 農漁業人과 生活改善會 會員 여러분이 함께 하신 가운데 제7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제10회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앞장서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예의 농어촌 발전대상과 생활개선 유공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 충청남도 생활개선회 김용남 회장님, 중도일보사 이기창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각급 기관 · 단체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者를 돕는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신품종 개발과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 확대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물의 우수성과 생활개선의 새로운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열정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공간적 개념의 변화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인간과 지구촌을 지배하던 근본 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어 변화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새로운 飛躍의 場으로 만들어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新知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능히 해 낼 수 있고, 21세기 우리 농어촌을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쌓아놓은 소중한 경험과, 하면 된다는 신념,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우리의 농어업을 살리고 앞서가는

농어촌을 향하여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농어업인과 생활개선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을 위한 밑거름

▸ 남북화해 · 협력을 위한 충청남도대회 · 2002. 11. 22

존경하는 한양수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님, 김진규 충남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조국통일의 의지를 다짐하는 『남북화해 · 협력을 위한 충청남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200만 도민의 통일역량 결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민족통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족통일 발전유공과 통일문예 작품 공모에 입선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족통일 가족여러분!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입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냉전지역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은 영토와 정치체제의 단순한 재통합이나, 분단 이전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고,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附合되는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합을 논의한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두터웠던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 맺친 南北이산가족이 만나고 폐허가 되었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공동발전의 주춧돌이 될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가며, 우리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南北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면서 통일을 향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 둘씩,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통일의 터전을 다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안전의 토대 위에서 상호 신뢰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여러분은 통일운동의 선구자로서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범 국민적 계도와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문예작품에 담아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 한반도의 번영은 南과 北의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민족자존의 旗幟를 높이 세우고, 통일과업 추진의 구심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우리의 통일 의지를 다지고, 남북이 하나되는 그 날까지 열성을 다해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족통일충남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체육의 저력

▸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 · 2002. 11. 29

자랑스런 임원 ·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우리 道가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수하고 『出戰 選手團 解團式』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體育雄道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애써 주신 임원 ·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훈련캠프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땀을 닦아주며, 성원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 체육계 인사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道가 이룩한 종합 3위의 영광은 지난해 이루어낸 종합우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값진 쾌거인 동시에 도민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는 저력을 對內外에 과시한 자랑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임원 ·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세계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꾸준한 자기계발과 기술연마에 정진한 선수만이 성취의 쾌감과 함께 승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各 종목별로 면밀한 전력분석을 통해 내년에 전북에서 열리는 제84회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만 도민이 드리는 영예로운 상

▸ 제46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 2002. 12. 21

오늘, 『제46회 忠淸南道文化賞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문과 예술 · 문학, 그리고 교육과 지역사회계발을 위해 크게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文化賞을 수상하신 다섯 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묵묵히 내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文化賞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용기와 활력을 북돋기 위해 200만 도민이 드리는 가장 권위있고 영예로운 賞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개별 공적소개가 있었습니다만, 각각 맡으신 분야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은 후세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文化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척도가 바로 문화의

수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道가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와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물결이 국가와 지역간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평준화를 요구하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개인들로 하여금 경제 성장과 같이 눈에 보이는 量的 풍요보다는 정신적 세계에서의 質的 滿足을 추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는 지역문화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인생의 깊은 맛을 느끼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남이 지향하는 문화시책의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문화상 수상자 여러분의 심오한 경지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떠받치는 健實한 기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시상식이 우리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생명공동체

▸ 환경21창립 1주년과 읍·면·동 발대식 · 2002. 12. 23

오늘, 우리 고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환경21 창립 1주년』과 읍·면·동 발대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오신 환경 21 구본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맡은 분야에서 땀흘려 일하면서 환경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정보화의 급진전은 인류의 생활을 크게 윤택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자원 고갈과 환경훼손 등으로 인류의 미래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루는 自然은 생명의 원천이자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시각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시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땅 위에 있는 자원을 아끼고 그 곳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비전도 사회 각 분야에서 環境親和的인 여건을 확고히 정착시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무한정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公共財産임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활해 온 순수한 자연관을 이어,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서산시민의 기초생활에서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지켜나가는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고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환경21 창립 1주년과 읍·면·동 발대식』을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부흥과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학술세미나 · 2002. 12. 26

오늘, 우리 道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 연합회 하금수 회장님과 시 · 군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 단체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깊은 강은 소리없이 흐른다"는 말처럼 드러나지 않는 강한 신념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신품종 개발과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농산물 수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이와같은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이 우리 농업의 위상을 對內外에 과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산업입니다.

"변화의 시대 21세기"는 단순히 시·공간적 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인간과 지구촌을 지배하던 근본 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를 새로운 跳躍의 場으로 만들어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능히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소중한 경험과 하면 된다는 신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역할

▸ 합덕청년연합회 13대 회장 이·취임식 · 2002. 12. 28

오늘, 합덕청년연합회 1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합덕청년연합회 회장을 맡으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신 김명호 전임 회장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 합덕청년연합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종길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합덕청년연합회 회원여러분!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참여와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열성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개발과 지도역량 계발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청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 무대로 나서는데는 바로 여러분의 힘찬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덕읍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 『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 서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젊은 기상, 미래를 향한 준비된 청년』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회원 상호간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의 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합덕의 번영을 위해 꿈과 비전을 새롭게 펼쳐 주실 이종길 회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 드리면서, 합덕청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健勝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도민과 함께한 행사

2003년 1월~12월

동문의 발전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 재전 서산농공고 동문회 · 2003. 1. 10

존경하는 재전 서산농공고 동문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이처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전 서산농공고동문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대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전 동문회 유인석 회장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公私多忙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 부회장으로서 동문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따뜻한 고향과 모교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전동문 여러분께서 모교에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 어린 보살핌은 모교의 발전은 물론, 서산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계신 동문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교와 서산은 동문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발판으로 자랑스런 모교의 교풍을 경모하여, 서로가 年限을 초월하여 맺어진 끈끈한 情으로 동문회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각의 발전을 위해서도 진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가슴에 담고, 자부심 높은 모교와 고향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동문 여러분의 발전은 곧 모교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문 여러분께서 더욱더 활약하셔서 한국은 물론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모교와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변함없이 보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계미년 새해, 늘 건승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스승존경 운동부터

▸ 충청남도 스승존경운동협의회 창립대회 · 2003. 1. 18

오늘, 교육이념 실현과 범 도민적 스승존경 운동 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스승존경운동협의회」가 창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스승존경운동협의회의 창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민기, 문의수, 심성래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道 협의회가 이처럼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스승존경운동 중앙협의회 오원균 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나, 물질만능시대로 변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스승존경의 전통이 갈수록 퇴색되어 가는 아쉬운 현실은 우리를 더욱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흔들리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가 식어가고 있음은,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잃으면 교육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내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도민 여러분께서 주축이 되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사도상의 정립을 위한 스승존경운동협의회의 출범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스승존경운동은 충절과 선비의 고장, 충남의 건강함을 구현하는 정신적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꾸준히 확산될 때, 우리 스승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회복될 것이며,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21세기 교육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우리 도 교육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참교육 실천과 교권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스승존경운동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농업은 생명이며 미래산업

▸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장 이 · 취임식 · 2003. 1. 21

오늘, 瑞氣어린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회장단 이 · 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道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결속을 다지는데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신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서정의]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정의] 전임 회장님께서는 충남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중앙연합회장의 중책을 맡으신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로운 농업시대를 열어가게 될 [지재돈] 신임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에서도 영농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농업인 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

여러분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부등켜 안고 우리 농업을 지키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강인한 삶을 살아 오셨습니다.

체념을 용기로, 고난을 지혜로 바꾸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비중은 국민 總 생산액과 연계하여 비교할 수만은 없는 중차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이며 미래산업입니다.

식량의 自給自足이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농업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선진농업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정보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경쟁 기반을 다져 나가는 앞선 농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우리 농촌을 스스로 지키고 가꾼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와 무한경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을

변함없는 애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충청농업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연다"는 意志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숭고한 봉사

▸ 대한적십자사 서산시 인명구조대장 이·취임식·2003. 2. 8

尊敬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대한적십자사 서산시 인명구조대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內外貴賓여러분!

오늘, 대한적십자사 서산시 인명구조대장 이·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시고 대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고귀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솔선 헌신해 오시다가, 이번에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조국상 대장님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만형 신임 대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사랑과 봉사의 선도자로 더욱 열성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명구조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시 인명구조대 가족 여러분!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음지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봉사의 정신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활동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천하 보다도 귀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듯이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활동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도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고장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활기찬 활동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원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인명구조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지성

▸ 대산청년회의소 창립 제11주년 특우회 제5주년 기념식 · 2003. 2. 14

오늘, 대산 청년회의소 창립 제11주년과 특우회 제5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과 전역식이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산JC 회장을 맡으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신 한일희 전임 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 그리고 전역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대산 JC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강화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예로운 제10회 한뫼대상을 수상하신 독호초등학교 자모회 지혜숙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산청년회의소 회원여러분!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참여와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지역사회 개발과 지도역량의 개발을 숭고한 이념으로 하고 있는 청년회의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우리 고장을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 무대로 나서는데는 바로 여러분의 힘찬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 서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이러한 일들과 『행동하는 지성, 참여하는 젊은 대산JC』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상호간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대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의 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산 지역의 번영을 위해 꿈과 비전을 새롭게 펼쳐주실 강화희 회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 드리면서, 대산 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과 도전의 첫걸음

▸ 도립청양대학 제4회 학위수여식 · 2003. 2. 14

오늘,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힘든 과정을 마치고, 영광의 학위를 받은 대학생 여러분의 희망찬 새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성으로 뒷받침해 오신 심대평 도지사님,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도의회 유병기, 이용면, 정선홍, 유영호 의원님, 그리고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의 무한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꿈을 안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또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에머슨은 「자신감은 성공의 제 1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이야말로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며, 항상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은 전문인력을 길러내고 배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自己開發만이 그 해답이고 正道일 것입니다.

대학또한 명실상부한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이자 "實事求是의 교육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도 스스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발하여 격변의 세계 속에 앞서 가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卒業生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知性人의 使命을 안고, 이곳 「벽천동산」을 떠나, 각자의 일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人生旅程에서도 지금까지 배우고 닦은 기량과 역량을 더욱 연마하는데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地域發展과 民族의 將來가 여러분의 양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祝賀드리면서, 도립 청양대의 繁榮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와 JC 역할

▸ 충남지구 JC 제34대 지구회장 · 회장단 · 감사 취임식 · 2003. 2. 19

오늘, JC청년운동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다지면서 희망찬 2003년도를 출발하는 충남지구JC 『제34대지구회장 · 회장단 · 감사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지구JC회장을 맡으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김태호 전임 회장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충남지구JC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기준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이완구 국회의원님, 강복환 교육감님, 김시환 청양군수님, 윤병준 청양군의회 의장님, 조규철 청양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JC회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충남지구JC 회원 여러분!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충남지구 JC회원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헌신적인 참여와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개발과 지도역량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JC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 무대로 나서는데는 바로 여러분의 힘찬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 『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 서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청년이 바로서는 나라, 희망의 충남』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JC회원 여러분의 우정을 다지고, 헌신과 봉사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어 『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 꿈과 비전을 새롭게 펼쳐주실 김기준 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취임을 거듭 축하 드리면서,

충남지구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健勝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 사명

▸ 행정수도 이전 범 국민연대 창립총회 · 2003. 2. 19

오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범 국민연대 창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행정수도이전 범 국민연대 창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전 · 충남 참여단체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도이전 범 국민연대가 이처럼 국민의 기대 속에 창립하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기관 · 단체장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수도의 이전을 단순히 서울인구의 과밀해소의 수단

으로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며,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활력은 지방에서 비롯된다'는 말처럼, 각각의 지역이 개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범 국민연대」의 출범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국가의 경쟁력과 지방의 생존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역사적 사명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합된 마음으로 공감대를 넓혀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실현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속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우리 충청권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수도 이전 범 국민연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창조의 시대

▸ 2003학년도 청양대학 입학식 · 2003. 3. 3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입학생 여러분!

오늘 도립 청양대학 2003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랑스런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김시환 청양군수님, 윤병준 군의회 의장님, 이은철 교육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학생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노동력과 자본보다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의 효율적인 창출, 그리고 혁신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도립 청양대학인으로서 끊임없이 지식을 쌓고 기량과 능력을 계발하면서 새로운 학문에 도전해야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21세기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시야를 크게 넓혀 세계인과 경쟁한다는 생각을 해야하며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道에서도 여러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 뜨거운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대학은 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하는 공동체이며,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21세기 충남시대의 대장정을 이끄는데 선봉이 되는 대학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저력 있는 대학, 세계 어느 곳에 놓아도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도립 청양대학의 명예와 위상이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 도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입학을 거듭 축하드리며, 새로운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길에 선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단 이·취임식 · 2003. 3. 3

새 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계절에,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道 여성농업인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여성농업인 도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우리 道 농업발전과 여성농업인의 결속을 다지는데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신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하금수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충남의 농업시대를 열어가게 될 박인주 신임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도 농업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

그 동안 여러분께서는 오직 사랑과 헌신이란 이름으로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셨습니다.

역동하는 자치충남의 뒤안길에는 항상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자신을 사르며 이 사회를 밝혀온 거룩한 여러분의 향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촌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점차 고령화와 여성화 추세에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농구조가 바뀌짐에 따라 우리 농촌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가일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道 차원에서도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1세기의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농업정책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여성농업인은 가부장 중심적 사회구조와 관행으로 농자금의 조달, 판로의 개척 등 영농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 농업의 비중이 국민 총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량의 자급자족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농촌과 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무엇보다 건강한 농업, 농촌사회의 구축을 통해 여성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은 농업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 나라의 새로운 농업과 농촌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道 여성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식 농업경영을 위한 다짐

▸ 당진군농민회 2003년 영농 발대식 · 2003. 3. 6

희망찬 새 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 좋은 계절에, 당진군 농업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당진군농민회 2003년 영농 발대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결속을 다지는데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시고 이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농연 당진군농민회 이종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김낙성 군수님, 김천환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진군 농민회원 여러분 !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WTO농업협상 등 세계경제의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농업의 비중이 국가의 국민 總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經濟論理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량의 自給自足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농촌과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무한경쟁 시대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개개인의 경쟁력확보와 「新 知識 農業經營 」이 체질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단시일 내에 승부를 내는 近視眼的인 영농 개혁으로는 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우리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무엇보다 건강한 농업, 농촌사회의 구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회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 나라의 새로운 농업과 농촌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국 농민회총연맹 당진군농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앞서가는 기업

▸ 주식회사 금강포장 준공식 · 2003. 3. 11

주식회사 금강포장 송민구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삼라만상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희망의 새 봄을 맞아 공장을 준공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뜻깊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임성규 시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공장이 준공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민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송민구 대표께서는 우리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적인 의원상을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농촌문제와 경제사정을 누구보다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식회사 금강포장의 준공은 어려운 농촌경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려는 의지의 결실로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으로 발돋움하여 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공헌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더욱 빛내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기업지원시책을 펼쳐온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 창업한 제조업체가 모두 6백여 곳으로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따라 침체되었던 우리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고속도로 개통과 행정수도 이전계획 등으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금강포장은 오늘 준공과 함께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송민구 대표께서 의회에서 보여 주셨던 의욕적인 활동을

기업발전을 위해서도 왕성하게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 모든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준공식을 축하드리면서 송민구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삶 바른 사회

▸ 충청남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03년도 정기총회 · 2003. 3. 12

오늘, 우리 道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 바르게살기 운동에 앞장서 오신 윤진수 도협의회장님, 시·군협의회장님과 읍면동 위원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유공단체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尊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家族여러분!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오랜 舊習과 無秩序를 바로잡고, 숭고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사랑의 빛을 밝혀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信念으로 先鋒에 서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이 계셨기 가능했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만과 안일, 그리고 부패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아름답던 우리의 美風良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社會紀綱이 흐트러지고 人倫道德이 변질됨으로써 우리 精神文化의 뿌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바르게살기운동의 必要性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흘려 이룩한 소중한 씨앗들이 더욱 값지게 열매 맺고, 도덕과 윤리가 가치기준이 되며, 정직과 진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는" 「生活의 變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역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 「3大 理念」은 개인과 이웃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되살리는 근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회와 열린사회를 만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어려웠던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家庭과 社會, 그리고 國家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國民運動의 求心體」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뜨거운 봉사 활동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道협의회의 무궁한 發展과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소식과 정보의 샘

▸ 서해안신문 창간 2주년 기념식 · 2003. 3. 14

오늘, 우리 고장의 언론문화를 선도해 온 「서해안신문」 창간 2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문을 통한 언론문화의 창달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정창현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조규선 시장님과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차성남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의 시대 '디지털 정보혁명' 이라는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이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로 삼는 것은, 신문이 지식을 담는 그릇이자,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선도자로서 인류문화를 전승 ·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사회 각 부문의 의사소통과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지역신문 이야말로 지방자치 시대가 요구하는 보다 질 높은 매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리한 시각과 통찰력으로 여론과 감동의 현장을 재조명하고, 정론직필로 세세하게 기록한 紙面을 통하여 우리는 힘차게 고동치는 충청인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편린을 모아 맑은 양심의 물줄기로 우리 사회를 밝히는 서해안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애향심과 끝없는 열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서해안 신문이 우리 고장의 "지식과 정보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위상을 계속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간 2주년을 계기로 급변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방문화 육성에 앞장서고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명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더욱 빠른 소식과 알찬 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독자로부터 사랑 받는

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해안신문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효는 행동의 근본

▸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 2003. 3. 18

尊敬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노인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강태형 지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어르신을 공경하고 정성으로 모시는 경로효친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 왔습니다.

옛 선현들의 가르침은 "孝"를 모든 행동의 根本이라 하였습니다.

孝가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德과 행실의 기초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는 생활문화의 윤리적 가치의식의 변화로 인해 敬老孝親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단순화되고 물질만능으로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의가 어르신들의 세대와 너무나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이 사회의 원로이신 어르신들의 고명하신 가르침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잘못 전도된 사회적 기준의 회복은 오로지 인생의 역정을 터득하신 어르신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풍부한 경험을 조화시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어르신들의 만년도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道議會에서도 어르신들께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기총회를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연합체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강태형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어르신 여러분의 만수무강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 충청남도새마을회장 이 · 취임식 · 2003. 3. 19

존경하는 충청남도 새마을 가족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새마을회장 이 ·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3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뜻을 모아 道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종승 전임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충청남도새마을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한창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이수성 중앙회장님과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 · 군회장님과 단체장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오늘 취임하시는 한창숙 회장님은 우리 道를 위해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셨고,

우리 도의회 제6대 의원으로 재임하실 때에도 저와 함께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간의 풍부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道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그동안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의 오랜 구습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숭고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사랑의 빛을 밝혀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새마을 운동의 질적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선봉에 서서 헌신해 오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가치관의 혼돈으로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미풍양속마저 흔들리는 등 정신문화의 뿌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개인과 이웃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되살리는 근본 철학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상신, 상교, 상조의 도의새마을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켜 다같이 相生의 길로 가는 구심체 역할을 여러분께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봉사 활동에 거듭 감사 드리면서,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진시민운동으로 재점화

▸ 선진문화시민실천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 · 2003. 3. 20

오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선진문화시민실천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고장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안근혁 전임회장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 서산시새마을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가제현 신임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시며, 우리 고장 새마을운동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조규선 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한창숙 道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새마을 운동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 까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철학을 실증으로 보여준 세기적인 국민운동입니다.

또한 온 국민을 하나로 일체화시키며, 숙명처럼 여겨왔던 가난의 굴레를 벗겨내고 자랑스런 조국 근대화의 운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연륜을 거듭할수록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일관된 정신으로 뚝심 있게 전진하여 마침내 이 나라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용기로 사회 각 분야를 다잡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선봉에 서서 헌신해 오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시련과 아픔에도 언제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맡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이 새로운 지방화 시대 역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개인과 이웃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되살리는 근본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봉사 활동에 거듭 감사 드리면서, 서산시 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내고장

▸ 한국수난안전협회 서산시 인명구조대장 이 · 취임식 · 2003. 3. 21

존경하는 서산시 인명구조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한국수난안전협회 서산시 인명구조대장 이 ·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대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고귀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솔선 헌신해 오시다가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김영식 대장님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안규남 신임 대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사랑과 봉사의 선도자로 더욱 열성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인명구조대 가족 여러분!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여러분의 구조활동은 우리 고장을

안전하고 살고싶은 곳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음지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봉사,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천하 보다도 귀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듯이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활동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도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안전한 내 고장을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취임하신 안규남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고장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활기찬 활동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원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수난안전협회 서산시인명구조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와 보건정보의 중심

▸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준공식 · 2003. 3. 28

오늘,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정병을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조부영 · 이완구 국회의원님, 채현병 군수님,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 지역 출신 이종건 · 이은태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이용학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의료원 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홍성의료원은 우리 道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의료기관입니다.

지난 1936년 개원한 이래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역주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현대식 의료 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21세기 서해안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크게 도약했습니다.

예로부터 질병 없는 사회, 무병장수의 꿈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자 염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환자는 물론 가족에까지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치매환자를 돌보거나 치료할 만한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치매요양병원의 준공은 매우 뜻깊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우리 서부지역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료원은 주민보건의식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와 보건정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모든 도민들께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준공을 계기로 21세기 새로운 "종합의료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홍성의료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인 비전 제시를 기대

▸ 서산미래연구모임 창립총회 · 2003. 4. 10

오늘, 서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서산미래 연구모임 창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서산미래 연구모임이 창립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산미래연구모임 공동대표단 임덕재 상임의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조규선 시장님, 윤찬구 시의회의장님, 최길학 충남서부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 역시,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서산은 서해안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측면에서 황해권의 거점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어느 지역보다 무궁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동북아 시대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로 일컬어지는 글로벌시대에 우리 서산이 경쟁력 확보의 요충지로서 그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비젼 제시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집약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비젼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이 창립된 것은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활력은 지방에서 비롯된다'는 말처럼,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개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산미래 연구모임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산시의 대표적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산미래연구모임 창립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 제9회 대산읍민 체육대회 · 2003. 4. 13

존경하는 대산읍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대산읍민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성대한 행사준비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주신 대산읍 체육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 체육대회가 해를 거듭할 수록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읍민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튼튼한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밝은 사회도 이룰 수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는 자칫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힘의 源泉은 바로 "운동의 생활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읍민 여러분의 굳건한 단합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진대열에 도약하는 일은 바로 읍민 여러분의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함께 모여 이 대회를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더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읍민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대산읍의 체육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우의와 결속을 굳게 하는 아주 소중한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읍민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합을 다지는 열린 스포츠

▸ 제6회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대항 게이트볼 대회·
2003. 4. 13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6회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대항 게이트볼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산시 게이트볼협회 백승남 회장님, 그리고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 서산시를 찾아주신 도내 게이트볼 동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조규선 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할 수록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건강과 체력이 유지되어야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으며, 밝은 사회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게이트볼은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가운데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은 물론 이웃과 서로 화합을 다지는 "열린 스포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게이트볼 경기를 통하여 왕성한 의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과학의 발달로 점차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복지수준이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道에서는 예견되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노인복지 201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전통과 윤리관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 사회의 원로로서 지난날의 축적된 경험도 들려주시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충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게이트볼 동호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에 기여하는 뜻깊은 축제의 한마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금물

▸ 제2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2003. 4. 17

오늘, 『제2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하시는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道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임성규 논산시장님, 강복환 교육감님, 충남교육위원회 양기택 의장님, 박해영 시의회 부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송영철 · 박태진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자원 봉사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뜻도 바로 장애극복 의지를 드높이고, 모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굳은 자립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신체적 장애가 결코 사회생활의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면 더 넓고 밝은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해 나간다면,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장애가 결코 문제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도내 6만8천 여명의 장애인들의 사기진작과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모범적으로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장애인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은 물론, 사회참여 여건 개선에도 비중을 두어 중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도민의 관심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건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친근한 벗

▸ 제9회 서산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 2003. 4. 20

오늘 소방의 중요성과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 보이는 「제9회 서산시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해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헌신 봉사해 오신 오용섭 서산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삼수 해미면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진 소방행정구현에 앞장서 오신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서산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차성남 도의원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의 안전을 지켜온 친근한 벗이었습니다.

119로 상징되는 소방 서비스는 이제 화재진압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주민의 "안전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奉仕者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크고 작은 화재나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이처럼 살신성인의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서산시민들은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 가족 여러분!

최근 도시의 발달과 함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고 유형도 더욱 다양화 ·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재난과 사고의 예방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우리 의용소방대원간의 우의를 다지는 가운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 고장 의용소방대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승부를

가리는 것 보다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아름다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항공우주산업

▸ 한서대학교 종합항공교육시설 기공식 · 2003. 4. 26

오늘, 한서대학교 종합항공교육시설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랑스런 차세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서대학교 김기주 이사장님과 함기선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진태구 태안군수님, 조한무 태안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함대희 항공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한서대학교에서는 21세기 산업의 주축이 될 항공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교육" 특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지방대학 육성사업과 재정지원대상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항공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항공산업은 현대 과학기술의 총체입니다.

항공산업은 관련산업의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세계 유수업체들이 항공관련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자리잡으면서 항공관련 종사자들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제 항공기술인력의 양성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고장의 명문사학인 한서대학이 이곳에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항공분야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항공교육시설을 세우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종합항공교육시설을 통하여 국제적인 항공기조종사 교육은 물론 첨단 항공분야 연구 및 개발의 생산단지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곳 서해안 지역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낙후되고 침체된 어촌에서 벗어나 21세기 미래산업을 주도하게 될 항공우주산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앞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미래 핵심산업이 바로 우리고장 태안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번영의 빛은 우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의 21세기를 서해안 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신념과 자신감으로 더욱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한서대학교 종합항공교육시설 기공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건강 파수꾼

▸부석 보건지소 준공식 · 2003. 4. 30

오늘, '부석 보건지소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농어촌 지역의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과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규선 시장님, 그리고 시공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류는 예로부터 질병 없는 사회,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질병의 증가는, 환자와 가족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돌보거나 질병을

치료할 만한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새로운 부석보건지소 건물의 준공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뜻있는 일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석보건지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크게 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는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 보건시설은 주민들에게 보건의식 함양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와 보건정보 센타"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석보건지소 준공을 계기로 21세기 새로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봉사자

▸ 제10대 대산읍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 2003. 5. 2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제10대 대산읍 의용소방대 대장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소방대원과 대산읍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재해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헌신 봉사해 오다가 오늘 10대 소방대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창환 대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취임을 계기로 대산읍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산읍민 여러분, 의용소방대 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의용 소방대는 오래 전부터 우리 마을은 물론, 우리 생활의 안전을 지켜온 친근한 벗입니다.

119로 상징되는 소방 서비스는, 이제 화재 진압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주민의 "안전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365日, 언제 어디서나 주민 여러분의 곁에는 바로 우리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저는 소방대원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크고 작은 화재나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소방대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촌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고 유형도 더욱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재난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한 지름길도 바로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대원 여러분이 소방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성실한 불침번이 되어 주시는 대산읍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대산읍 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은 백년대계

▸ 2003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2003. 5. 6

친애하는 학생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과 내빈 여러분!

오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업에 정진한 보람으로 영예의 충청남도 장학생이 된 학생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동량을 육성하기 위해 이처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뒷바라지 해 오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복환 교육감님, 도교육위원회 양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는 것은 정말 보람있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인본행정을 우선하는 우리 道가 장학금을 조성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충남의 인재를 많이 길러 내어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큰 뜻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은 그 지역의 인재양성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충청남도장학생 여러분!

우리가 순탄한 길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장학생 여러분은 눈보라와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단단하게 자라는 재목과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힘든 일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경쟁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는 국제적인 감각과 세계화의 안목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처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생각과 용기를 지닌 人才들이며, 21세기 지구촌을 누비는 巨木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하면서 이렇게 가슴 뿌듯하고 마음 든든한 것도 바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충남장학회의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꿈을 안고

▸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다짐대회 · 2003. 5. 7

오늘, 제23회 전국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다짐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장애인체전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유익한 특강을 해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박강수 전 배재대 총장님, 도내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마을을 열어 하나로 꿈을 안고 미래로" 가는 희망의 축제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번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된 마음으로 경기장 시설을 비롯하여 손님맞이를 위한 모든 준비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훌륭한 시설과 대회운영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기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원봉사야말로 우리 사회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체험하셨듯이, 자원봉사는 베푸는 사람에게 보람을 주고,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각박한 우리 사회를 밝히는 횃불이며, 사랑을 전달하는 전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각박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소외된 이웃이나 그늘진 곳에서 궂은 일을 몸소 실천하는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도울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정성은 늘 우리 충남인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충남인의 모습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각인 시켜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다짐대회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원봉사자 가족 여러분의 힘찬 전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健勝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교와 고향발전

▸ 서산농공업고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 2003. 5. 10

오늘, 서산농공업고등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개교 60년의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산업인의 꿈을 키우는 학교로 큰 발전을 이룩한 정제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조규선 서산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남정화 총동창회 회장님, 윤찬구 시의회의장님, 차성남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43년 성실과 근면을 교훈으로 출범한 우리 서산농공업고등학교는 격동의 세월을 지나 60년 동안 1만6천 여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 공헌해왔으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석학 토인비는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기술과 문화의 세기로 알려진 21세기는 바로 재학생과 동문 여러분께서 일궈내야할 토양입니다.

특히 첨단 농업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인들의 책임과 사명이야말로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터전, 서산과 모교는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발판으로 자랑스런 모교의 교풍을 경모하며, 서로가 年限과 환경을 초월하여 맺어진 끈끈한 情으로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가슴에 담아 자부심 높은 모교와 고향 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그 동안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과 총동창회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본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속에 합기도

▸ 제4회 충청남도지사기 합기도 선수권대회 · 2003. 5. 11

오늘, 「제4회 충청남도지사기 합기도 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민생활체육 충청남도 합기도연합회 함기철 회장님, 서산시 합기도 연합회 김계환 회장님, 그리고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 서산시를 찾아주신 도내 합기도 동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합기도의 저변확대와 도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합기도는 우리 나라의 전통무예로서 스포츠의 가치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생활의 재충전과 활력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친근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건강과 체력이 밑받침 되어야만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으며, 밝은 사회도 이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힘의 원천"은 바로 체육활동의 생활화입니다.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합기도가 국민생활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합기도 동호인들의 친교의 장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행사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남선수단 결단식 · 2003. 5. 1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道선수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준비와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힘써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이건휘 회장님과 감독 · 코치,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의 대표로서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선수단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 이번 전국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이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선수 여러분은 기량향상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승리가 경기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종합우승이라는 결정체로 더욱 값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혼과 기력을 쏟아 경기에 임할 때, 선수 여러분은 충남체육사에 길이 빛날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은 지난 2001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한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음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 모아진 도민의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러한 도민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새겨 주신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회에서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자립의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장애는 충분히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 여러분이 평소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충남의 명예를 다시금 드높이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충남 선수단 여러분의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나라의 장래를 밝히는 빛

▸ 제15회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식 · 2003. 5. 17

존경하는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오늘, "제15회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여섯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정성으로 내조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많은 분들이 賞을 받고, 또한 이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우리 도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賞이 있지만, 오늘 시상식을 갖는 이 교육상이야말로 그 어떤 賞보다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賞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며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국가의 百年大計를 세우는 길이라는 선생님들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그 자체를 聖業으로 여기시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을 쏟아 주시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충남교육에 남기신 공적은 지역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우리 충남의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미덕이 무색해 지는 뼈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의욕을 잃으면 교육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道가 오래 전부터 전개해온 "스승 존경 운동"은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자는 데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범 국민운동으로 꾸준히 지속될 때,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물론,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바른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바로 우리의 미래, 나라의 장래를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이 받으신 영광의 賞에는 그동안 이룩하신 빛나는 공적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 우리 충남 교육을 위해 더 큰 일을 해 주시길 바라는 도민의 기대가 담겨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명예로운 교육의 참모습과 정성을 다하는 교권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인의 잔치 한마당

▸ 제1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문화축제 · 2003. 5. 17

오늘, 우리 道 생활체육인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12회 충청남도생활체육문화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道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충남생활체육협의회 최희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오영희 시장님, 저와 함께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준우 부의장님과 그 외 여러 도의원님, 정한석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생활체육인 여러분!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도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스포츠의 가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생활의 재충전과 활력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친근한 생활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건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건강과 체력이 밑받침되어야만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으며, 밝은 사회도 이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힘의 원천"은 바로 체육활동의 생활화입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이를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도민 건강의 구심체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열려 있어야 하며,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보급 하는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생활체육이 도민생활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희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교육 실현을 위한 큰 힘

▸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 2003. 5. 19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상무 삼락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과 만남의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후학 양성에 힘써오신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수성 회장님,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시장, 군수님과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君子三樂"이라 하여 가르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고 즐거운 일 중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개인은 물론 국가의 百年大計를 다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그 자체를 聖業으로 여기시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을 쏟아 주신 선생님들의 발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에 남기신 업적은 지역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었음은 물론,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스승존경의 전통이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교육 부재의 아쉬운 현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흔들리고 그 속에서 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가 식어가고 있음은, 도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바른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돈으로 방황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성교육의 不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신을 낳아준 어버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다면, 영혼을 낳아 키워주는 선생님" 이라며 교육의 본질을 갈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들의 경륜과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희망의 불빛이 필요한 이때, 선생님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참교육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큰 위안이 되시고 심신의 활력을 회복하시는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고애례 도 새마을부녀회장님과 시·군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의 만수무강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과 용기로 어려움을 넘고

▸ 2003 충청남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 2003. 5. 27

오늘, 『2003년도 충청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열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충실히 연마하여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과 힘써 주신 지도교사 ·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능경기대회의 대회장이시며, 우리道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이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건휘 도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오영희 공주시장님, 강복환 교육감님, 충남교육위원회 양기택 의장님, 정한석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송민구 · 최운용 · 이제남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 문화적 창의력이 개인은 물론, 국가와 지역간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며, 세계가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변화된 세계화·정보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무엇보다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도 바로 여러분과 같은 많은 산업역군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선 지식과 기능만 있으면, 여러분도 훌륭한 職業人으로서 당당히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제23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불굴의 의지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여러분과 같은 우수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마한 높은 기능과 기술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여러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부문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내 장애우들의 사기 진작과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장애가 결코 문제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여러분이 평소 갈고 닦은 투철한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충남 선진기능의 금자탑을 쌓아 가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선수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

▸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수도권본부 창립대회 · 2003. 5. 27

오늘,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수도권본부 창립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범국민연대 수도권본부를 결성하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대입니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자립과 자활, 자생의 체질을 길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개혁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삼는 이유는 바로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 체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첩경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차대한 공동 현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대전·충북 광역의회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촉진을 위한 충청권광역의회 의장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한 목소리를 대승적 차원에서 꾸준히 이끌어 내야 합니다.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민·학·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말보다는 실천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한 수도권본부 창립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가 순수 민간기구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촉진에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도권본부 창립대회가 우리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수도권에서도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수도권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C의 사명과 활동

▸ 제34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및 제26회 영광의 충남인상 시상식 · 2003. 5. 31

오늘, JC 청년운동의 사명과 봉사 의지를 다짐하는 『제34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및 제26회 영광의 충남인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젊은 지성과 패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헌신과 열의를 보여 주신 김기준 지구회장님과 논산JC 김재성 회장님을 비롯한 JC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예로운 「영광의 충남인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 · 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이인제 국회의원님,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 임성규 논산시장님, 최홍묵 논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박태진, 송영철 도의원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충남지구JC 회원여러분!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회원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헌신적인 참여와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똑같이 JC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특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과 활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개발과 지도역량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JC의 사명과 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 무대로 나서는데는 바로 여러분의 힘찬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 『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 서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청년이 바로서는 나라, 희망의 충남』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JC회원 여러분의 우정을 다지고, 헌신과 봉사의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져 『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남지구 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健勝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사랑받는 스포츠로

▸ 제18회 충청남도지사기 유도대회 및 제46회 충청남도회장기 유도대회 · 2003. 6. 5

오늘, 內浦문화권의 中心地이자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인 서산에서 「충청남도 유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 유도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대회를 준비해주신 충청남도유도회 김영태 회장님과 서산시 유도회 송낙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오늘의 이 대회를 맞이해 주신 서산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도인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도는 태고로부터 그 기원이 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연구와 개선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땅에 유도가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단순한 운동차원을 넘어 힘과 기를 겨루며 강인한 정신과 혼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른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젊은이들에게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으로 전해지면서 여성들도 선호하는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인의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계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는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충청남도 유도대회가 해를 거듭 할수록 유도의 발전은 물론, 도민 건강과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유도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앞장 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소속팀과 고장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스포츠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맘껏 펼치심은 물론, 승부를 뛰어넘어 화합과 우정의 場으로 승화시켜 멋진 추억도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대회를 준비한 유도회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극은 무대위의 종합예술

▸ 제21회 전국연극제 개막식 · 2003. 6. 12

오늘 백제역사와 문화의 고장 공주에서 "마음으로 모인 마당, 몸짓으로 푸는 축제"라는 주제로 「제21회 전국연극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 연극의 균형 발전과 연극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앞장서 온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극제에 참여해 주신 전국 15개 시·도 연극예술인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정한석 공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극은 인간의 근원적 감정 깊숙이 파고들어 喜怒哀樂의 원형적 표현수단으로 모든 예술의 始原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대공연예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연극은 현대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극은 무대 위의 종합예술로서 폭넓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연극 수준의 향상이 곧 한국 예술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전국연극제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연극예술인 여러분이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이러한 수준 높은 연극예술의 진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연극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이 전국연극제가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연극예술의 발전과 연극인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성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신한국연극협회 충남도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극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명물 팔봉감자

▸ 제2회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 · 2003. 6. 14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오늘, 「제2회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만 도민과 함께 이를 경축합니다.

먼저,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규선 서산시장님과 이상순 행사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오신 출향인사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 팔봉산은 우리 고장의 명산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며 일찍부터 그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은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산행을 하며 시원한 숲의 낭만을 즐겨 왔습니다.

저는 이곳 팔봉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언제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팔봉면민과 서신시민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이 팔봉산 기슭에 감자를 재배해 왔습니다.

아주 보잘 것 없이 보였던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백여 농가, 80여 만평에 이르는 면적에서 감자가 재배되고 있으며, 우수한 맛과 품질로 우리 고장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감자뿐만 아니라 많은 우수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를 주제로 한 축제 행사를 가짐으로써 자연이 준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이를 가꿀 줄 아는 여러분의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더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자연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지역과 국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 팔봉면이 이 분야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자긍심과 향토애가 더 큰 지역 사랑으로 이어질 때, 우리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세계속의 일류로 우뚝 설 것이라

믿습니다.

흔히 축제의 성공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여 그곳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여러분께서도 훈훈한 인심과 인상깊은 손님맞이로 이 지역을 사시사철 찾아오는, 살고 싶은 마을로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 추진위원회의 무한한 발전과 이 곳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문화의 향기

▸ 제4회 안견예술제 개막식 · 2003. 6. 15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오늘, 「제4회 안견예술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견예술제 제전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한국화의 표상이신 안견 선생께서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 화가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적 특징을 짙게 나타내고 있는 선생의 화풍은 조선시대 초기는 물론 중기까지 크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곳 기념관에도 선생의 숭고한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안견 선생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한 예술의 표상으로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의 예술혼은 비단 작품뿐만 아니라 총민하고 정박한 성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위대한 業績은 우리 민족의 순박한 심성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 문화예술의 전통을 보존시키고 정서를 순화시키는 등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때, 이러한 선생의 예술혼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안견예술제의 개최는 우리 서산시민은 물론, 200만 도민들에게 민족 자존의 지혜를 주고 지역 문화예술 의지를 일깨우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고장의 자랑이신 안견 선생은 오늘 이 예술제를 계기로 우리들 마음에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안견선생의 얼을 이어받아 세계 속의 일등 시민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 안견 선생의 예술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역사랑에 대한 결의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산교육장이 되는 제4회

안견 예술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열린사회의 지향

▸ 제9회 도의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2003. 6. 16

오늘,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 추진과 신행정수도 충청권 유치 결의를 위한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시며, 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청남도새마을회 한창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이완구 국회의원님, 강복환 교육감님, 정선홍 · 유영호 도의원님, 김시환 청양군수님과 윤병준 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시장 · 군수님, 의회의장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家族여러분!

그 동안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의 오랜 구습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숭고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사랑의 빛을 밝혀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선봉에 서서 헌신해 오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결의하시게될 기본예절 3대 실천운동과 신행정수도 충청권 유치는 개인과 이웃은 물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되살리는 정신운동이자 시대적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으로 社會紀綱이 흐트러지고 미풍양속이 흔들리는 등 精神文化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일수록 새마을 운동의 必要性은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믿음의 사회, 열린사회를 만드는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우리 모두 화합의 한마당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함께 하며, 가정과 사회, 그리고 國家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을 다짐하는 뜻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뜨거운 봉사 활동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새마을회의 무궁한 發展과 여러분의 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밝히는 교육의 힘

▸ 충청남도 초·중등학교장 생활지도 연수회 · 2003. 6. 18

오늘, 교육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충남교육과 청소년 생활지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충청남도 초·중등학교장 생활지도 연수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전해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격려의 말씀과 특강을 위해 함께 하신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도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양기택 교육위원회 의장님, 송화섭 단국대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와 지방의 동량지재를 길러내며 사도의 길을 걷고 계시는 도내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찬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내 초·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사회의 변화와 번영이, 바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비록 사도의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선생님 여러분의 정과 사랑이 모여질 때,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과 번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6.25의 폐허 위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워 낸 것도 모두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경쟁의 21세기에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주역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와 청소년 생활지도에 관한 과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볼 때, 현안중의 현안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물질만능의 풍조로 인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이 흔들리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사분오열되면서 교육현장에 대하여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정보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만, 나이스(NEIS)란 곁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며, 우리 앞에 시급히 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안고있는 교육과 청소년 문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는 교육계의 단합과 교육공동체의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더 이상 교단이 분열의 회오리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장선생님 여러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 충남 교육정책이 올바르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충남 교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계신 여러분이 함께 모이신 이 자리가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청소년 생활지도를 위한 훌륭한 대안들을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연수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며 행사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밑바탕

▸ 제50주년 반공의 날 기념 및 국가안보 결의대회 · 2003. 6. 18

존경하는 통일안보협의회 회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오늘, "제50주년 反共의 날 기념 및 국가안보결의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고귀한 生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전쟁의 상흔을 가슴에 안은 채 반세기 동안 굳굳한 삶을 살아오신 통일안보협의회 회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충남도지회 윤승섭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반세기전, 6.25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反共壯擧"에 대한 의의를 되새기고 그날의 감격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25는 同族相殘의 비극으로 이어져 아름다웠던 조국의 산하를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南과 北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이산의 아픔을 안고 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만의 아픔이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밑바탕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 국가를 건설해냈습니다.

그동안 南과 北은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물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냉전체제의 아픔을 통하여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 없이는 자유, 번영, 평화 등 우리가 염원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통일안보협의회 회원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남북 대화에 이른바 출퇴근 회담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과 북을 출퇴근하며 회담하는 출퇴근 회담이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북녘 땅을 이웃 동네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할 수 있게된 이번 출퇴근 회담은 남과 북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회담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때맞춰 지난 14일, 드디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통일을 여는 또 하나의 물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南과 北의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협력과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실익에 바탕을 두고 대결이 아닌 相生의 전략을 추구하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우의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숙원인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모두가 단합하는 다짐의 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안보협의회 충남도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 워크샵 · 2003. 6. 20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계룡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과 都農복합형태의 市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전격 가결됨에 따라 14년만에 우리의 숙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률검토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룡시 승격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숙원이 빛을 보게 된 것은 200만 도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발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이 법률안이 가결되기까지 힘써 주신 지역출신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준비 기획단 설치 등 차질 없는 시승격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道議會에서도 道와 함께 계룡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방정치 지도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치와 정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샵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우리 道議會와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한국정당학회 정진민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기봉 연기군수님, 각 시·군의회 의장단 여러분을 비롯한 정당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님, 토론에 임해주실 배재대 김 욱 교수님, 중앙대 손병권 교수님, 단국대 안순철 교수님, 건국대 곽진영 교수님, 서울대 서현진 연구원님, 성균관대 가상준 연구원님, 지방행정 연구원 황아란 연구원님, 그리고 전영환 도의회 운영위원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지방자치제 부활 1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50여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뒤이어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지방자치는 경험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성과 제도적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시작되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가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자치여건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 동반·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었음은 지나온 지방자치 10여년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이 주민 본위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창의와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게 되었음은 민선자치에서만이 가능한 지방자치의 변화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만큼 주민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의회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중심 軸이 되어 지역의 공동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산을 그 주요 정치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격 추진과 함께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지방자치라는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중앙 집권적인 정치·행정·사회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 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의 대안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지방정치가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여건이 너무나 척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주의와 정경유착, 보수 정치체계, 중앙집권화와 지역불균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되면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서구의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치적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원래 지역사회의 역사적 전통과 지역적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한 국가의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인문·자연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정치도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치·행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성의 高低를 평가하는 주요 척도가 되고 있음은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보다 성숙한 지방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한사람의 노력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주민 · 자치단체 · 지방의회 · 시민단체 · 학계 등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선진자치를 지향한다는 대국적 안목에서 어렵게 부활된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워크샵이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정당정치 제도화의 접점을 찾아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神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구는 신사의 경기

▸ 제15회 충청남도지사기 배구대회 · 2003. 6. 20

오늘, 內浦문화권의 中心이자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인 이곳 서산에서 「재15회 충청남도지사기 배구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 배구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대회를 준비 해주신 충청남도배구협회 이지섭 회장님과 서산시배구협회 이기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각 시·군의 배구인 여러분과 따뜻하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오늘의 대회를 맞이해 주신 서산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군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의 체육은 스스로 참여하여 즐기는 가운데 장소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은 물론 이웃과 서로 화합을 다지는 "열린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구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기 스포츠일 뿐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많은 동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으로 친숙한 운동입니다.

다른 스포츠도 그러하지만 특히 배구는 협동심을 불러 일으켜 선수와 관중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운동이며, 개인주의가 늘어만 가는 현대인에게 단결심을 길러주는 단체운동이기에 배구대회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대회를 통하여 배구가 도민생활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소속팀과 고장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스포츠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겨루어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맘껏 펼치시는 것은 물론, 승부를 뛰어넘는 화합과 우정의 場으로 승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기 배구대회가 해를 거듭 할수록 체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도민 건강과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배구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국민 건강과 화합에 기여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대회를 준비한 배구협회 관계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뒤편의 용기와 희망

▸ 제7회 농아인의 날 기념식 및 충청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 2003. 6. 23

오늘, '제7회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여 「충청남도 농아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하시는 농아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충남농아인협회 이양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이시우 보령시장님, 천옥석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농아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농아인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뜻도 바로 장애극복 의지를 드높이고, 모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동참하자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굳은 자립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道 천안에서 개최되었던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우리 충남은 여러 면으로 劣勢에도 불구하고, 체전 출전사상 종합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도민은 물론 우리 농아인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한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음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신체적 장애가 결코 생활의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면, 더 넓고 밝은 세상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계발해 나간다면,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회는 농아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하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농아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화합과 단합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 서산 JC 창립 23주년 및 특우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 2003. 6. 27

오늘, 「서산 JC창립 33주년 및 특우회 창립 26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젊은 지성과 패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헌신과 열의를 보여 주신 김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JC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JC 발전에 헌신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賞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 · 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회원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헌신적인 참여와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개발과 지도역량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JC의 사명과 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 무대로 나서는데는 바로 여러분의 힘찬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 「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 서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JC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JC회원 여러분의 우정을 다지고, 헌신과 봉사의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져 「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산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健勝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에 보다 큰 관심을

▸ 국제로타리 3620지구 부성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2003. 6. 28

존경하는 국제로타리 3620지구 부성로타리클럽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 「국제로타리 3620지구 부성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해 오시다가 이번에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제7대 안진식 회장님께 존경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취임하시는 제8대 유봉열 신임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부성로타리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로타리 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부성로타리 클럽은 창립이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한결같이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이 땅에 로타리 이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기주의를 씻어내며,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주었습니다.

이제, 부성로타리는 그간의 연륜이 말해 주듯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봉사단체로 굳게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노력과 단합된 힘이 모아진다면 21세기는 분명 우리의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봉사체제가 절실한 지금, 우리 로타리인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봉사활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타리 운동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큰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로타리의 숭고한 이상 실현도 끝없는 관심과 봉사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 우리의 꿈과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로타리 가족 여러분의 탁월한 역량과 결집된 힘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이·취임식이 로타리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더 큰 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로타리 3620지구 부성로타리 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활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 제8회 여성주간 기념 제2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 2003. 7. 4

존경하는 충청남도 여성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8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여성들의 역량을 드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제2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용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 여성발전과 평등문화 실천에 앞장서 오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성무용 시장님, 장상훈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가정들은 많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 잠재력을 가정에 보관 해야하는 문화와 사회환경 속에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권익이 놀랄 만큼 증진되고 특히,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역할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역사에 비친 성차별의 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평등문화를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보화 된 사회 속에서 편중된 인력만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참으로 인적자원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여성과 남성의 협력은 물론, 경쟁력 있는 여성,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를 가진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지역 문제에 있어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가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절실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는 여성들의 능력과 사회참여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데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여성에게 사회활동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중요한 핵심전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결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道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행사가 우리 지역사회와 여성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의 사진속에 예술혼이 가득

▸ 제33회 충청남도 사진대전 시상식 · 2003. 7. 5

오늘, 충절과 예학의 고장 논산에서 「제33회 충청남도 사진대전」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진예술 발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박태진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진예술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고 이번 사진대전에서 입상하여 영예로운 賞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묵묵히 내조해 주신 가족 · 친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심대평 도지사님, 임성규 시장님, 최홍묵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진예술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가식 없이 기록하는 작업인 동시에 절제된 표현 양식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순수한 예술분야입니다.

순간의 포착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사진예술은 소중한 작품의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과 안목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쏟아온 사진예술인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신문명의 사회에서는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영상예술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예술산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주도적인 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에 계신 사진예술인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 충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진대전을 통하여 사진예술에 대한 기량을 더욱 넓혀가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진대전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태진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업인의 흥겨운 한마당

▸ 제14회 서산시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대회 · 2003. 7. 5

신록이 짙어 가는 이 좋은 계절에, 서산시 농업경영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여러분의 오랜 숙원인 농업경영인회관 준공과 함께 「제14회 서산시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결속을 다지는데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시고 이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송원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조규선 시장님, 문석호 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서산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시 농업경영인 여러분!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WTO 농업협상 등 세계경제의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농업의 비중이 국가의 국민 總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經濟論理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량의 自給自足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확신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농촌과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이 무한경쟁 시대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개개인의 경쟁력확보와 「신 지식 농업경영」이 체질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단시일 내에 승부를 내는 근시안적인 영농 개혁으로는 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우리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데 앞장서야 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무엇보다 건강한 농업, 농촌사회의 구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여러분의 정보제공과 만남의 장소가 될 농업경영인회관이 준공된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농업경영인회관이 어느 지역보다 농업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수요자 만족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찬 공간으로 농업인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 나라의 새로운 농업과 농촌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행사가 농업인 여러분의 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

▸ 제8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 2003. 7. 30

오늘, 우리 道 농업경영인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며, 우리 농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제8회 충청남도농업경영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지재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우수농업 경영인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 송민구 도의회 농경위원장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서정의 회장님을 비롯한 농민단체 여러분, 김낙성 당진군수님, 김천환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오늘날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농민들의 고뇌와 아픔 속에서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이 속출하며, 국내외 경제적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이익에 국한하여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의 기반이 없이는 결코 나라의 번영과 미래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원적 시각에서 접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한 경쟁의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국가간 이익을 증진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농업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어 경쟁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어느 직종이던 자신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창조적인 신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생명산업이고 미래산업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농업이 개방화와 다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변함없이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根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대회가 농업과 농촌발전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새로이 다지고, 범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 충남새농민 연찬회 · 2003. 8. 5

넓은 들판과 산천초목이 더욱 푸르러 가는 이 젊음의 계절에, 우리 道 새농민회 회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충남새농민연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발전과 농민의 결속을 다지는데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시고 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새농민회 충청남도회 성효용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 전국새농민회 류광열 회장님, 조규선 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농협충남본부 김두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새농민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방과 경쟁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면서 농민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온 새농민회 회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찬회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뜻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농업의 비중이 국가의 總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확신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농촌과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무한경쟁 시대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개개인의 경쟁력확보와 「신 지식 농업경영」이

체질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업인의 지위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건강한 농업, 농촌사회의 구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농민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 나라의 새로운 농업과 농촌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고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국 새농민회 충청남도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숲에서 미래를

▸ 제12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 2003. 8. 12

오늘, 이곳 천안에서 「제12회 전국임업후계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나라 임업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임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김규식 중앙회장님과 장석우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최종수 산림청장님, 심대평 도지사님, 전용학 국회의원님, 이윤종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유재갑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님, 성무용 시장님, 장상훈 시의회 의장님, 도의회 송민구 · 최민기 의원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후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산림이 주는 경제적 환경적 혜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시련을 당할 때마다 산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국민들이 부족한 식량과 연료 난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우선 산림녹화를 통해 홍수와 갈수, 산사태를 완화시켜 농업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수많은 연료림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땔감을 공급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해동안 우리 나라에서 자란 나무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1조원에 달하여 산림에서 생산된 경제적 총가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계산한 것으로, 산사태 방지와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대기 정화와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액을 산출한다면 아마 천문학 숫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효과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임업후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흘린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토의 65%에 이르는 산림을 경영하는 일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아직도 우리임업의 여건은 순탄치 않고, 전문적인 기술과 강한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 를 맞아 산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숲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시대 헐벗은 국토를 단 기간내 녹화하는데 성공한 저력을 거울삼아 이제부터 산지를 자원하고 경쟁력 있는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산림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그 가치의 중심이 경제기능에서 생태환경과 공익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늘어나는 기상재해로부터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임업 후계자 여러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노력해 나간다면 21세기 새로운 도전 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대회가 산림과 임업발전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새로이 다지고, 범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임업후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의 메카 농업테크노파크

▸ 충남농업 테크노파크 설립 발기인 대회 · 2003. 8. 19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입추와 말복이 지나면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이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도 농업의 핵심메카로 육성될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발기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 농업과 농촌발전에 힘써 주시고 농업테크노파크가 전국 최초로 설립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발전은 물론 농업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농업관련기관 · 단체장님, 법인설립 자문위원님, 대학총장님과 자문교수님, 그리고 도의회 송민구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농업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농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 덕택이라 생각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발기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농업비중이 국가의 總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확신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농업과 농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방과 경쟁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면서 농민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신기술 보급의 혁신기구로

중점 육성하게 될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21세기형 농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산업에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이 접목된 2차, 3차 산업으로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선진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충남농업의 진로제시와 새로운 농정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쓸 것이며, 농업테크노파크가 21세기 농업의 핵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발기인 대회가 우리 道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은 국가산업의 근본

▸ 민족농업 지키기 2003 충남농민 전진대회 · 2003. 8. 21

오늘, 우리 道 농민회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며 우리 농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민족농업 지키기 2003 충남농민전진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최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민회원과 가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농업비중이 국가의 총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 없이는 결코,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확신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농업과 농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방과 경쟁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면서 농민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의 농업은 21세기형 농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에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선진농업으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무엇보다 건강한 농업, 농촌사회의 구축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회원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 나라의 새로운 농업과 농촌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힘차게 뻗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전진대회가 우리 道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은 이 세상의 어머니

▸ 여성 도의 교실 · 2003. 8. 28

오늘, 우리 市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만들기 위한 「여성 도의교실」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 바르게살기운동에 앞장서 오신 김정한 市 협의회장님과 이명복 성연면 위원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며, 특강을 해주실 조규선 시장님과 김용식 계룡시 설치준비단 총괄관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연면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부와 부패,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아름답던 우리의 미풍양속이 흔들리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인륜도덕이 변질됨으로써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바른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가정교육의 중심이 되는 여성 여러분께 도의교실을 개설하고 건전한 가정과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女性을 '이 世上의 折半'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여성을 '이 세상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힘은 결국 女性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지닌 힘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큼 무한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여성의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고 남성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실상부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여성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으뜸 예절고장, 바른 가정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성도의교실」이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다짐

▸ 청소년보호단 발대식 및 한마음 다짐대회 · 2003. 8. 28

존경하는 서산시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 고장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화합 운동에 앞장서 온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가 청소년보호단 발대식 및 한마음다짐대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 유제석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규선 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기관 · 단체장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반세기의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자유총연맹은 그 동안 순수민간운동차원에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자유와 평화, 그리고 화해를 지향하는 국민운동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제까지 펼쳐온 활동은 궁극적으로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다져 나가기 위한 국민운동이요, 국가적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 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갖는 것도 우리의 역량을 배가시켜 지역 발전은 물론, 평화통일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자유를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와 공존기반을 다지기 위한 국론통일 과업에 나서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민화합과 국론통일, 그리고 국력결집의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여러분의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한마당 화합의 큰 잔치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농업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 충남농민연대 출범식 · 2003. 8. 28

오늘, 우리 도내 7개 농민단체가 모여 「충남농민연대」를 결성하고, 뜻깊은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충남농민연대 최명식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각 참여 농민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심대평 도지사님,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김두철 본부장님, 농업기반공사 충남본부 최정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처리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이농현상과 농업인력의 노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농업과 농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우선 정치적 논리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제시하여 우리 농민들이 농정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농협과 기반공사 등 여러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 이러한 농업문제에 대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다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하고자 내일 도내 농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이면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을 촉구하는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농업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민단체와 농업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농민연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농업을 이끌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으로 이끄는 주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변화하는 이 시대의 주체임을 직시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새로운 농업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계속되는 한 우리 농업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며, 농업인 여러분이 애쓰신 만큼 환영받는 세상이 머지않아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출범식이 우리 농민단체간 상호 협력과 단결은 물론, 자랑스런 농업인으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한층 드높이고 번영된 새 농촌의 시대를 열어 가는 뜻 깊은 행사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농업발전을

▸ 서산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 2003. 8. 28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처서가 지나면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서산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촌지도자 서산시연합회 최명용 회장님과 서산시 생활개선회 유옥연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의 고난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자연의 악조건은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농업인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슬기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나라안팎의 경제적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의 좁은 시장만을 겨냥하는 농업경영으로서는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날로 거세어지는 개방 압력과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도 국제적 흐름에 적응하고 빠르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미래의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영농을 펼쳐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선점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 동안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모두 털어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속에 모두 하나되어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자세로 우리 농업과 지역발전의 선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이제 풍년농사로 이어져 값진 결실 속에 보람을 갖는 한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비결

▸ 한서대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2003. 8. 29

오늘,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힘든 과정을 마치고, 영광의 학위를 받은 대학생 여러분의 희망찬 새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성으로 뒷받침 해오신 김기주 이사장님, 함기선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의 무한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꿈을 안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또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에머슨은 「자신감은 성공의 제1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이야말로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며, 항상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차세대 인재를 길러내고 배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만이 그 해답이고 正道입니다.

졸업생 여러분께서도 끊임없는 성찰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항상 최고의 전문인력으로서 격변의 세계 속에 앞서 가는 사람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가발전과 민족의 장래가 여러분의 양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인생여정에서도 지금까지 배우고 닦은 기량과 역량을 더욱 연마하는데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서대학교의 번영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봉사로 아름다운 사회를

▸ 제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워크샵 · 2003. 9. 3

오늘, "제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워크샵"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만드는데 헌신적 역할을 다해오신 김수진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의 참여복지 구현에 큰 힘이 되시며, 오늘 특강을 해주실 심대평 도지사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정한석 시의회 의장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님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에 우리 충남은 "넉넉한 인심", "미소와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돕고 사는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몸소 실천하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기에 앞서 먼저 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손길이야말로 아름다운 인류애의 실천운동이며,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개인주의로 진행되면서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샵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하는 봉사의 손길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복지사업이야말로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가듯, 우리 사회에 새로운 꿈을 이어가는 사랑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야말로 물질적 가치로는 그 척도를 나타낼 수 없는 소중한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友情과 結束을 다지며, 우리 충남의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契機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에 초가을의 정취가 충만하시고, 늘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적인 농정을 위해

▸ 도내 농민단체 간담회 · 2003. 9. 3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로 들어서면서 가을을 느끼게 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도내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와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그리고 우리 道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모인 가운데 「우리 충남농어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올 농사의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바쁜 농사철입니다만,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어떨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에서도 금어기가 풀리면서 활발한 조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연초의 폭설과 냉해, 그리고 유례없는 잦은 비로 인하여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유난히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고 있는 한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농어촌 현장에서 흘리신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를 무난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업이 이 정도로 성장하고, 우리 농어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처리와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이농현상과 농어업 인력의 노령화, 농어가부채 등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 WTO 제5차 각료회의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면적인 무역개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소득안정 직불제 등 농가 소득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면한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어민들이 농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어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우선 정치적인 논리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농어민을 위한 농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농어업 회생대책을 제시하여 우리 농어민들이 농정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가 전체인구의 13%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농어업은 우리 농어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안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 이러한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다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하고자 오늘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그 동안 추진했던 농어업시책에 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발전적인 농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농어업은 농어업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충남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지도자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농어업을 선진화하고 국가생명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어업이 경쟁력 있고 농어촌이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간담회가 우리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간 상호 협력은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간담회를 위해 애써주신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8일 앞으로 다가온 중추절을 맞이하여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마다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단결

▸ 제11회 생활체육도지사기 테니스 대회 · 2003. 9. 7

오늘,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 서산에서 「제11회 생활체육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 테니스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대회를 준비 해주신 충청남도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 김재천 회장님과 서산시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 조재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차성남 도의원님,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최희택 회장님,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조헌행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원 · 선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올해로 열 한 번째를 맞는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체육의 질적 향상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은 스스로 참여하여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은 물론, 이웃과 서로 화합을 다지는 "열린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테니스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여러 종목마다 대회를 열어 이를 확신시켜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테니스가 도민생활 속에 더욱 가까워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포츠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됩니다만,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은 화합과 단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소속팀과 고장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정정당당히 겨루어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승부를 뛰어넘는 화합과 우정의 場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테니스 동호인 저변확대는 물론, 도민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의 場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준공식 · 2003. 9. 25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道 농업인의 전당이자, 21세기 지식 · 정보 농업시대를 선도하게 될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준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 농업과 농촌발전에 힘써 주시고, 농업테크노파크가 전국 최초로 준공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영욱 농촌진흥청장님, 오장섭 국회의원님, 박종순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시장 · 군수님과 시 · 군의회의원님, 농촌지도자道연합회 지충원 회장님과 농업관련기관 · 단체장님, 그리고 도의회 송민구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도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나라 안팎의 경제적 파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잦은 비와 태풍, 그리고 세계적인 농업 개방화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전과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무역협정인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개방화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농민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장래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농업발전과 신기술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농업테크노파크가 이곳에 준공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농업테크노파크의 준공으로 우리 충남의 농업은 이제 새로운

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 농업인의 정보교류의 공간인 동시에 우리 농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농업의 핵심 메카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밝은 미래를 열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 또한 함께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전문화하는데 힘쓸 것이며, 농업테크노파크가 21세기 농업의 핵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농업테크노파크 준공이 우리 道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과학 영농을 이끄는 수레바퀴

▸ 농기자재 유통센터 준공식 · 2003. 9. 25

풍요로운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道 농업인들에게 우수 농기자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게 될 「농기자재 유통센터 준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道 농업과 농촌발전에 힘써 주시고, 농기자재 유통센터가 준공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 한국농업경영인 道연합회 지재돈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영인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서정의 회장님, 박종순 예산군수님, 이회운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중대한 변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

회의가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앞으로 농업개방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쌀에 관한 재협상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후 IMF 외환위기를 거쳐 온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UR협상이 타결된 뒤 수십조원의 돈을 농어촌에 투자했지만 많은 농가들이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들어 계속되는 비와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태풍까지 엄습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이 녹색혁명과 농업 선진화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생산기술의 혁신을 포함한 농업의 현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의 숨은 공로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신기술 보급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우리 道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자 농기자재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학영농을 지향하는 오늘의 농업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기자재의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물론 우리 道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영농기술개발과 부단한 연구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때가 닥치면 항상 그렇듯이 지금은 중앙과 지방은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전문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농기자재유통센터 준공이 우리道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여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성과 열정의 여성정치인

▸ 통일 · 복지포럼 제3차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 2003. 9. 29

오늘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일 · 복지포럼 제3차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일 · 복지포럼을 이끌어 가시면서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엄금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유덕준 정무부지사님, 성무용 시장님, 장상훈 시의회 의장님, 이 지역 출신이신 김문규, 최민기, 정종학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김현기 교수님, 김성윤 교수님, 강석승 박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도에 창립한 통일 · 복지포럼이 어느덧 세 번째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 남짓한 기간에 이처럼 연이어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 현안인 통일과 복지정책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흐뭇하고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이 지니신 열정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물론, 앞으로 펼쳐질 통일과 복지에 대한 우리의 미래가 매우 밝으리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한층 빈번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이때,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갖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엄 회장님께서는 우리 충남도의회 제7대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뚜렷한 정치신념을 가지신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질 높은 삶과 충남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엄금자 의원님을 믿고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엄 회장님께서는 대학 교수이자, 에세이작가로서의 명성이 자자한 분입니다.

한 권의 책도 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벌써 여러 권을 출판하여 독자들에게 많은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

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셔서 우리시대 최고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한, 저술가로서 더 활발한 활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남·북한의 현실을 재조명하여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의지를 다지고, 국가와 지역발전으로 승화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복지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가르침

▸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 · 2003. 10. 2

오늘, 제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노인활동을 보여 주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강태형 지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로부터 어르신을 공경하고 정성으로 모시는 경로효친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옛 선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孝"는 행동의 근본으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모든 德과 행실의 기초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는 서구 생활문화의 유입과 윤리적 가치의식의 변화로 敬老孝親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단순화되고 물질만능으로 변화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은 무너지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의가 어르신들의 세대와는 너무나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원로이신 어르신의 고명하신 가르침이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도된 사회적 기준의 회복은 오로지 인생의 역정을 터득하신 어르신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풍부한 경험을 조화시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어르신들의 만년도 풍요롭게 즐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道議會에서도 어르신께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진정한 노인복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모처럼 여흥을 즐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 여러분의 만수무강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 한마당

▸ 제5회 서산시민 체육대회 · 2003. 10. 3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서산시민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조규선 시장님과 서산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로운 시민대상과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심대평 도지사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의장님, 차성남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읍·면 선수단과 주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체육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

여러분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황해권의 거점도시이자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뻗어나갈 우리 고장은 서해안 시대의 산업과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은 물론, 충남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굳건한 단합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 시민체육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축제의 場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민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서산시의 체육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우의와 결속을 굳게 다지는 한마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기쁨, 베푸는 사랑

▸ 제11회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 2003. 10. 7

오늘, 도내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위업을 기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제11회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여 우리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력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남다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유덕준 정무부지사님, 나소열 군수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보람과 풍요로움을 주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道 여성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봉사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 속에서 밝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자원봉사야 말로 우리 사회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체험하셨듯이 자원봉사는 베푸는 사람에게 보람을 주고,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이 더 큰 자신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봉사의 손길은 우리 충남의 위상을 한층 드높여 주었으며, 자원봉사의 의미와 그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각박한 우리 사회를 밝히는 횃불이요, 사랑을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대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우리 충남여성의 진취적인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고 여성활동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넓혀 나가는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밝은 사회를 가꾸어 주시는 여성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봉사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충남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 2003. 10. 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道 선수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힘써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체육계 지도자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의 대표로써 강도 높은 훈련을 쌓고, 비장한 각오와 결의에 찬 선수단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성원을 보냅니다.

충남의 명예와 긍지를 안고 출전하는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께서는 이 순간을 위하여 밤낮을 잊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꽃피울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든 혼과 기력을 쏟아 경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충남 체육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수단 여러분이 이번 체전에서도 충남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기 도중 어려울 때마다 도민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신다면 역경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우승의 낭보가 전해질 때마다 200만 도민 모두는 뜨거운 환호를 보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수단 여러분이 그 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충남의 명예를 다시금 드높이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충남 선수단 여러분의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사랑 실천으로 밝은 사회를

▸ 2003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 2003. 10. 9

오늘, 도내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함께 하신 가운데 "참여복지 구현을 자원봉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3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력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성무용 시장님, 장상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보람과 풍요로움을 주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道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봉사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 속에서 밝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기 그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야 말로 우리 사회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체험하셨듯이 자원봉사는 베푸는 사람에게 보람을 주고,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곳곳에서 상부상조의 정신과 자원봉사의 물결이 흘러넘칠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여준 봉사의 손길은 우리 충남의 위상을 한층 드높여 주었으며, 자원봉사의 의미와 그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각박한 우리 사회를 밝히는 횃불이요, 사랑을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박람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자원봉사에 대한 열기와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밝은 사회를 가꾸어 가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봉사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

▸ 제2회 충남보육인 한마음 대회 · 2003. 10. 18

오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영·유아 보육증진과 보다 발전하는 보육현장을 위해 다짐하는 "제2회 충남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사업에 열성을 다해 주시고 이 행사를 준비 해주신 충청남도 보육시설 연합회 조원주 회장님, 각 시·군의 시설장님과 원장님을 비롯한 보육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영유아교육 발전에 헌신해오신 공적으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보육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정한석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보육인 여러분!

최근 핵가족화의 경향에 따라 가정의 영·유아를 바르고 건전하게

키우려는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얼굴이 밝게 빛날 때 그 나라의 國運도 융성한다"는 말과 같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때, 우리의 밝은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보육사업은 지난 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정부와 보육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道에서도 모두 942개소의 보육시설에서 3만7천여명에 이르는 많은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추구해야 하며, 보육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의미하듯이 올바른 교육은 요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즈음 아동교육이 빠른 속도로 조기화·전문화되고 모든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아동들에게 보다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육인 여러분의 의연하고 결의에 찬 다짐이 보육현장에 하나 둘씩 접목시켜 나아갈 때, 우리 충남의 보육사업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보육인 여러분의 화합과 보육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힘과 정성을 하나로

▸ 제55회 도민체육대회 · 2003. 10. 22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오늘, 충절의 고장 이곳 예산에서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남체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는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종순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체육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종필 총재님, 오장섭 국회의원님, 충남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도내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장의 명예와 긍지를 안고 출전한 선수 임원 여러분!

그 동안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온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성원을 보냅니다.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충남의 역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은 지난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또다시 상위에 입상함으로써 체육웅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자탑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임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충남의 명예를 걸고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소중한 땀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체전에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힘과 기량을 겨루고 더 큰 대회를 준비하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힘과 기량을 겨루고 그 우열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를 통해 200만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충남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내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에서 하나되어 도약하자 일류 충남」이란 구호 아래 펼쳐지는 이번 도민체전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충남도민의 강인한 정신력과 기상을 표현하고 충남의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사회

▸ 제24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 · 2003. 10. 24

오늘, 「제24회 흰지팡이 날」을 기념하여 시각장애인복지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하시는 시각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큰 힘을 실어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도지부 황화성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무용 시장님, 장상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각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것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흰지팡이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뜻도 바로 장애극복 의지를 드높이고 모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동참 하자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굳은 자립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신체적 장애가 결코 사회생활의 제약이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면 더넓고 밝은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계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하고,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道議會에서도 「신체적 장애가 결코 문제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도내 장애우들의 사기진작과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여러분의 재활과 이동권 확보, 그리고 사회참여 여건

개선에 비중을 두어 중점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모범적으로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장애우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며, 여러분 모두에게 자립과 성취의 날이 다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도민의 관심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도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체육의 쾌거

▸ 제84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 2003. 10. 28

자랑스러운 임원 ·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우리 道가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의 위업을 달성하고 「解團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육웅도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애써 주신 임원 ·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훈련캠프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땀을 닦아주며 성원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형식 부교육감님, 체육인사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道가 이룩한 종합 4위의 우승은 지난 6년 연속 상위권 입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값진 쾌거인 동시에 200만 도민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자랑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임원 ·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세계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합니다.

꾸준한 자기계발과 기술연마에 정진한 선수만이 성취의 쾌감과 함께 승자의 영광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에 충북에서 열리는 제85회 대회에서도 올해의 영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육인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끝까지 선전분투 해주신 임원 선수단 여러분, 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 삶을 위하여

▸ 2003 충청남도 자활한마당대회 · 2003. 10. 29

오늘, "충청남도 자활한마당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고 이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충남도지부 박노근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활·자립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기관·단체와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에 큰 힘이 되어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김무환 군수님, 신재덕 군의회 의장님,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김준영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도민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3년을 맞이하여

개최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초생활은 국가에서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근로능력향상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민·관이 다함께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후견기관과 자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道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4천만 全국민이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지원과 의욕고취를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행사는 도내 자활후견기관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結束을 다져, 우리 道의 자활·자립사업이 한 단계 향상되는 소중한 契機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에 늦가을의 정취가 충만하시고, 늘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드립니다.

승부를 뛰어 넘는 화합과 우정의 마당

▸ 제3회 충청남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탁구대회 · 2003. 11. 2

존경하는 임원 · 선수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민 여러분!

오늘,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 이곳 서산에서 「제3회 충남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체육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대회를 준비해주신 서산시탁구연합회 이귀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조규선 서산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충남도의회 차성남 의원님,

그리고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탁구운동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마다 동호회가 생기고 전국적인 행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탁구는 전신운동일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탁구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나라 탁구를 짊어지고 나갈 유망주를 발굴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대회를 위하여 그 동안 힘과 기를 연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인고의 세월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연마해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포츠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지만,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은 화합과 단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소속팀과 고장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정정당당히 겨루어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승부를 뛰어넘는 화합과 우정의 場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하여 탁구가 도민생활 속에 더욱 가까워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탁구 동호인 저변확대는 물론,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

▸ 서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 · 2003. 11. 7

오늘, 우리 지역 지방분권 운동의 새로운 구심체가 될 「서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윤찬구, 함기선, 최길학, 백승억, 남현우 공동대표님과 여러 회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산시지방분권협의회의 창립은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15만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역의 민·학·관이 힘을 모아 힘찬 첫발을 내딛는 창립총회의 개최는 그 뜻을 더욱 높이 살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이란 권한과 자원의 중앙집중을 완화해서 전국이 고루 잘살게 하자는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입니다.

"자기 결정과 자주 관리" 이념을 토대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15萬시민과 함께 하는 내 고장 서산시를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때가 되었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이후, 12年이 넘는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충분한 자치역량을 키웠으며, 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성숙되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정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의 큰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현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혁 노력과 지방의 노력이 합쳐질 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의 참모습은 보다 빨리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앞장을 설 것입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시민과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화 실현에 총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립총회가 이를 위한

의지를 결집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산시지방분권협의회의 힘찬 출발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C특우회원들의 우정

▸ 제13차 충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 2003. 11. 8

오늘, 「제13차 충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헌신과 열의를 보여 주신 충남지구 JC특우회 박상희 회장님을 비롯한 특우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정진석 국회의원님, 이기봉 연기군수님, 홍종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지구 JC특우 회원 여러분!

항상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회원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고장을 살찌우고 빛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헌신적인 참여와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해오신 특우회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지역사회 개발과 지도역량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JC의 사명과 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도전의 물결을 헤치고 세계 무대로 나서는데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힘찬 활동과 리더십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딛고 「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선봉에 서서 묵묵히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JC의 꿈은 더욱 빨리 성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이 JC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특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과 활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특우회 여러분의 우정을 다지고, 헌신과 봉사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져 「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남지구JC특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 파수꾼들의 잔칫날

▸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2003. 11. 8

오늘 소방의 중요성과 소방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41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재해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헌신 봉사해 오신 김홍필 서산소방서장님, 임부원 의용소방대연합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진 소방행정 구현에 앞장서 오신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조규선 서산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차성남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가족 여러분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의 안전을 지켜온 친근한 벗이었습니다.

119로 상징되는 소방 서비스는 이제 화재진압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주민의 "안전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크고 작은 화재나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소방대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이처럼 살신성인의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서산시민들은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의 발달과 함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고유형도 더욱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재난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재난과 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고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소방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도약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결의대회 · 2003. 11. 12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이복구입니다.

오늘, 전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 현안이자 200만 충청권 주민의 염원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결의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이호일 공동대표님과 충청남도새마을회 한창숙 회장님,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도협의회 윤진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완구, 김학원, 강창희, 박병석 국회의원님,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지난 대선공약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선을 넘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첫열쇠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충청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구의 반이 집중된 수도권 문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공동현안입니다.

또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가 집적된 단핵구조로는 사회전반에 부작용을 양산시키고, 지방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방의 생존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는 역사적 사명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금년도 정기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가 충청권에서만 이뤄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진퇴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힘을 모아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속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물론, 우리 충청권이 국가발전과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 이 결의대회가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성공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소중하고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의 잔치 한마당

▸ 제3회 서산시 농업인 대회 · 2003. 11. 12

오늘, 모처럼 농업인 여러분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제3회 서산시 농업인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산시생활개선회 유옥연 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조규선 시장님, 문석호 국회의원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차성남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여러분!

올해는 유례없는 잦은 비와 태풍, 그리고 세계적인 농업개방화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 흘리신 여러분의 땀과 노력

으로 이를 무난히 극복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 만큼 성장하고, 우리 농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특히,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가이익에만 급급하여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지 않고서는 결코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생명산업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은 물론,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과학화·전문화하는데 힘쓸 것이며, 미래산업으로서 핵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열리는 오늘 이 대회가 농업과 농촌발전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새로이 다지고, 15만 시민과 함께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을파소

▸ 제2회 을파소상 시상식 · 2003. 11. 13

오늘,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공직자를 찾아 업적을 선양하는 「제2회 을파소상 수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 뜻깊은 을파소상을 제정하시고 훌륭한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하신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윤진수 회장님과 충청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최성호 대표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과 교육부문, 그리고 지역사회 안녕을 위한 치안부문에서 남다른 활동을 전개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을파소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묵묵히 내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심대평 도지사님, 이기묵 충남경찰청장님, 그리고 특강을 해주실 문용린 서울대 교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을파소상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공직 발전을 위해 공헌한 숨은 공직자를 찾아 그 업적을 찬양하고, 용기와 활력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고 긍지 높은 상입니다.

각기 맡은 분야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이룩한 공적과 모범적인 삶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미래 지향적인 공직자상 구현과 지역사회의 자긍심 확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인물인 을파소는 고구려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국정을 지성으로 수행한 훌륭한 공직자였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쳤는가 하면, 진대법이라는 구휼제도를 창안하여 백성을 구제하였던 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창조성과 인본주의, 그리고 경로사상의 실천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어느 단체보다도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 온 바르게살기운동 道 협의회와 충청하나은행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을파소상을 제정하고 시상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한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살아 숨쉬고, 창의성을 한껏 발휘하여 도민의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을파소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의 심오한 공직관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건실한 기둥이 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억과 예술혼을 담는 사람들

▸ 제1회 충청남도 사진인의 밤 · 2003. 11. 15

오늘, 이곳 서산에서 제33회 충청남도 사진대전 순회전과 제5회 사진작가협회 道 회원전, 그리고 사진인의 밤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진 예술인의 활동과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박태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차성남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진예술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가식없이 기록하는 작업인 동시에 절제된 표현양식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순수 예술입니다.

생생한 현장을 담은 한 컷의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때로는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보여준 사진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우리 道 사진예술의 잠재력을 재확인 해주었으며, 지역문화 진흥에 큰 희망을 갖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분야에 남다른 재능과 안목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쏟아온 사진예술인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사진작가 여러분의 열정적인 작품들이 도민의 눈과 마음으로 전해져 지역문화 창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하여 사진예술에 대한 기량을 더욱 넓혀 가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박태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위 있고 긍지 높은 문화상

▸ 제47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 2003. 12. 4

오늘, 우리 고장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들의 업적을 선양하는 「제47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술과 예술, 문학과 교육, 지역사회와 체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활동을 해오신 공로로 영예로운 문화상을 수상하신 여섯 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묵묵히 내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정발전과 문화창달에 큰 힘이 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 문화상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하신 분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용기와 활력을 북돋기 위해, 200만 도민이 드리는 가장 권위 있고 긍지 높은 賞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기 맡은 분야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이룩한 공적과 모범적인 삶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자긍심 확산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文化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삶을 가치 있고 윤택하게 해주는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물결이 국가와 지역간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동일한 생각과 행동패턴을 요구하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으로 하여금 量的 풍요보다도 質的 만족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심성이 메말라 가고, 각박해 지는 정신적 빈곤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정신적인 덕목이 되고 있는 지역문화적 가치와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인생의 깊은 맛을 느끼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道가 지향해야하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문화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여러분이 이룩하신 공적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 우리 충남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주시길 바라는 도민의 기대가 담겨 있음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심오한 경지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건실한 기둥이 되고 우리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에 애정을 바친 사람들

▸ 제11회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 · 2003. 12. 6

오늘, 우리道 농어업인 여러분이 함께 하신 가운데 "제 11회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림수산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공적으로 오늘 영예의 농어촌 발전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상식을 마련하시고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각급 기관 · 단체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농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신품종 개발과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물의 우수성과 새로운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쌀 생산 7년 연속 전국 최고단수를 달성하는 등 올 한해 우리 농어촌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잦은 비와 저온현상, 그리고 태풍 피해 등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올해였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다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농어촌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주신 농어업인 여러분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업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농어업과 농어촌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가이익에 국한하여 우리 농어민들의 고통과 농어업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지 않고서는 결코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어업은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생명 산업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농어업도 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결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어업의 선진화에 힘쓸 것이며, 미래산업으로 핵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상식이 우리의 농어업을 살리고 앞서가는 농어촌을 향하여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농어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손길, 큰 희망

▸ 난치병 및 결식아동돕기 친선 골프대회 · 2003. 12. 12

존경하는 정남진 대전매일신문사 사장님을 비롯한 골프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인정이 그리운 이때에... 「난치병 및 결식아동 돕기 친선 골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곳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자원의 부족 등으로 많은 이웃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내일의 동량인 어린 학생들 가운데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방관하는 현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최종 책임은 우리 사회 공동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중부권 최고의 신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대전매일신문이 우리지역의 난치병 어린이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일에 어느 단체보다 앞장서 온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원되는 도움의 손길이 나라의 초석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는 보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남진 대전매일신문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환경은 인간의 터전

▸ 환경 21창립 2주년 기념 및 환경대상 시상식 · 2003. 12. 18

존경하는 환경21 구본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21 창립 2주년 기념 및 환경대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21 구본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 환경보전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오신 공적으로 오늘 영예의 환경 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 단체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기, 인류가 추구했던 숨가쁜 물질성장은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의 악화

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오존층 파괴와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지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적·물적 폐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강과 건축 구조물 부식 등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때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여름의 잦은 비와 저온 현상,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도 환경파괴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환경문제는 국내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全지구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각인 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는 환경21은 지난 2001년 창립된 이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해 市협의회 창립과 읍면동 16개지회 합동 발대식을 통하여 완벽한 환경단체로서 조직을 완성하는 등 어느 단체보다도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21의 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은 무한정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公共재산"임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서산시민 모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이를 지켜나가는데 구심체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21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화재예방

▸ 예산소방서 개서식 · 2003. 12. 20

오늘, 예산군민의 오랜 바램이었던 「예산 소방서」가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개서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민의 안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헌신 · 봉사해 오신 장기운 예산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오장섭 국회의원님, 박종순 예산군수님, 이회운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군의원님, 최길재 道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 그리고 이 고장 출신 이용면 · 김기영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예산소방서 개서를 경축하면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19로 상징되는 소방서비스는, 이제 화재 진압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주민의 안전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365일, 언제 어디서나 도민의 곁에는 바로 우리 소방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발달과 함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고 유형도 더욱 다양화 ·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재사건이나 풍수해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재난뿐만 아니라 예측불허의 재해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는 다행히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들어 1,200여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 재난과 재해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산소방서가 개서하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소방서 개서를 계기로 언제나 사고 없는 예산을 가꾸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 입주와 함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여 더욱 질 좋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산소방서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소방가족 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소방서 개서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사고의 감시자가 되어 재난 없는 선진 고장을 만들어 가는 「안전 충남」의 파수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개서 준비에 수고한 임용배 본부장과 김대환 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기약하며

▸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연대 송년의 밤 · 2003. 12. 22

격동의 癸未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행정수도 이전범국민연대 송년의 밤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이호일 공동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충남도지사님, 염홍철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의 화두는 역시 「신행정 수도의 충청권 건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이처럼 형성되고, 오늘 이 송년의 밤 행사가 열리기까지는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과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노고 덕택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방의 생존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는 역사적 사명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는 순수 민간 기구로서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반대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그 어느 단체보다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이제,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지금은 충청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이번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성원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기필코 이룩하고, 우리 충청권이 국가발전과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오늘 이 송년모임이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성공적인 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쏟는 소중하고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아늑한 사랑방

▸ 지곡면 무장3리 마을회관 준공식 · 2003. 12. 24

먼저, 주민 여러분의 최대 숙원이었던 「마을회관」이 이처럼 훌륭하게 신축되어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장의 발전과 자랑스런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오신 최재곤 무장3리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곡면 무장3리 주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갑신년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동시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면에서 여의치 않은 우리 농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바로 지방화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계시는 마을 주민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할 수 있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오신 값진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주체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선진 마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을회관 준공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마을 주민이 이 회관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우리 농촌이 가야할 방향을 밝히는 주민 여러분의 전당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무장3리 마을회관 준공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족 이웃 사촌

▸ 대산읍 화곡1리 마을회관 준공식 · 2003. 12. 26

격동의 癸未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 주민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마을회관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자랑스런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 오신 이현호 화곡1리 이장님과 마을 지도자 여러분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조규선 시장님과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산읍 화곡1리 주민 여러분!

올해는 저온 현상의 기후변화와 함께 정치 · 경제 ·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에서 흘리신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 소중한 한 해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이 만큼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노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점차 고령화·여성화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1세기를 향한 우리 대산읍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대산항 개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개발과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역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지 않고서는 결코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장의 발전을 선도하여 오신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여기계신 주민 여러분은 물론, 15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을회관 준공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마을 주민이 이 회관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우리 농촌이 가야할 방향을 밝히는 주민 여러분의 전당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화곡1리 마을회관 준공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와 여유의 공간

▸ 부석면 취평2리 마을회관 준공식 · 2003. 12. 27

새해의 소망과 기대를 안고 떠오른 癸未年의 태양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을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최대 숙원이었던 「마을회관」이 이처럼 훌륭하게 신축되어 준공식을 갖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과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장의 발전과 자랑스런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오신 강효규 취평2리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취평2리 주민 여러분!

올 한해는 저온 현상의 기후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농업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

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 첫 날, 가슴속에 새겼던 희망과 믿음을 간직한 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장이 이 만큼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노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곳에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바로 지방화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할 수 있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오신 값진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주체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선진 마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을회관 준공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마을 주민이 이 회관에

모여 정보를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있는 사랑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취평2리 마을회관 준공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도민과 함께한 행사

2004년 1월~6월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한 해를

▸ 2004 천안상공회의소 신년 교례회 · 2004. 1. 5

갑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을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지역의 최대 화두는 역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의 원년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첫 해를 맞은 만큼, 도민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부풀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분권 · 분산 · 분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부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살기 좋은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안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기업인의 힘을 결집하는데 앞장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호기를 살려 충남발전은 물론, 기업인 여러분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甲申年 올해는 변화와 개혁, 분권과 균형이라는 시대적 명제가 의미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신년교례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 뜻을 이루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 2004 충남 여성계 신년 교례회 · 2004. 1. 5

오늘,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갑신년 새해를 맞아 충남 여성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도와 시·군 여성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용남 道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을 배제했던 고정관념과 차별의식들이 하나 둘 벗겨지고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적 자원은 국가 사회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전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여성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개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또 하나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권은 약속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난공불락의 城처럼 여겨졌던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무엇보다 200만 도민은 물론, 우리 道여성계 지도자 여러분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의회 여성의원인 홍표근 의원이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관철을 위해 삭발까지 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한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200만 도민의 뜻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신 홍표근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여성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내려온 관습이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등에 의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의 기쁨이 훨씬 커지듯, 여성계 지도자 이신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하여 평등사회의 구현과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남녀 서로가 가진 능력과 기량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사회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남녀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성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甲申年 올해는 변화와 개혁, 분권과 균형이라는 시대적 명제가 의미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신년교례회를 통해 도내 모든 여성단체와 여성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뜻을 이루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과 농업에도 희망을

▸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 2004. 1. 13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 속에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해 오시다가 이번에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제12대 송원후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취임하시는 제13대 우상원 신임 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서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시의회 의장님,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농업과 농촌문제입니다.

특히, 세계무역질서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와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주의 확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우리 농업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처리가 여러분들의 저지로 일단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도시와 농촌, 공산품과 농산품의 문제로 비준될 경우, 도시와 기업은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관련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보다 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국한하여 우리 농업인의 고통과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지 않고서는 결코 국가의 번영과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생명산업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시장의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과학화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의 선진화에 힘쓰고, 미래산업으로 핵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취임식이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앞서가는 농촌을 향하여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서산시 농업 경영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는 인류의 소망

▸ 충청권지도자 초청 평화유엔활동 보고대회 · 2004. 1. 16

오늘, 지성인의 전당인 이곳 선문대학교에서 『충청권 지도자 초청 평화유엔 활동 보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곽정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선명 총재님 내외분, 각계 종교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를 존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윤리와 도덕이 실추되는 등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과 지도력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안고 반 백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테러는 또 다른 모습의 전쟁상태로 중동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이 국가와 종교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참가정 운동과 청소년 순결운동을 통하여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데 앞장서셨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남북통일 운동에도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류의 염원인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종교 초국가적 접근"이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성취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분쟁의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평화 대행진』을 개최하시는 등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도 몸소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충청권 지도자들을 불러 주시어 최근의 여러 가지 세계적 활동상을 보여 주시고, 세계평화에 대하여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세계평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이며, 하나님 중심의 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참사랑 실천의 본이 되고,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품질 충남경영의 원년

▸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 및 월드브랜드 선포식 · 2004. 1. 27

오늘,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도정의 품질과 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高品質 忠南經營 宣言 및 월드브랜드 宣布式』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 행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하신 도단위 · 기관 단체장님, 시장 · 군수님과 시 · 군의회 의장님,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品質競爭』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제품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면서, 품질은 이제 기업은 물론, 모든 일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지방행정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道에서는 100PPM운동과 ISO 9001인증 획등등 행정혁신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결과, 도정의 품질관리·품질경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행정 각 분야의 품질혁신 노력은 주민의 요구나 선진행정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면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민 만족의 지방자치를 이루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몇 십 배·몇 백 배 더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道가 올해 도정의 각 분야를 고품질 및 월드브랜드화 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국정의 핵심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3대 특별법의 법적기반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道가 올해를 『高品質 忠南經營의 元年』으로 정하고,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리신 땀과 노력은 국가와 충남발전에 힘찬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예견하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道를 선진화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행정방식이나 가치체계에 안주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 지역과 국가라는 한계를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우리 道議會에서도 자치도정의 한 軸으로서 高品質 忠南經營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품질 충남경영 宣言과 월드브랜드 宣布式』을 통하여 도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200만 道民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면서,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보람을 찾는 자원봉사

▸ 서산시 자원봉사협의회 재결성 · 2004. 2. 7

친애하는 서산시자원봉사협의회 회원 여러분!

오늘, 체계적인 조직과 봉사활동으로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봉사의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랑과 봉사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 오시면서 이번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기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의 소금이 되고 밝은 빛이 되어 영예의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시면서 그 참사랑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각박한 세태 속에서도 나눔의 정과 희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등불이었으며,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도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보람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서산시자원봉사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IMF 당시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이후 8년 동안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선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취업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벌지못해 기초 생활보장을 받는 극빈층이 14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속에서 자원봉사 회원 여러분의 고귀한 땀방울은 더불어 사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밝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사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펼치는 활동이야 말로 사랑과 믿음이 가득찬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헌신적인 봉사로 우리 고장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밝은 사회를 가꾸어 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지역이 서로돕고 의지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숨쉬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야무진

다짐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

▸ 대산 JC창립 12주년 및 특우회창립 6주년 회장단 이·취임식 · 2004. 2. 9

친애하는 대산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

먼저, 대산청년회의소 창립 12주년과 특우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산청년회의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강화희 전임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속에 오늘 신임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언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과 모범적인 활동으로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그동안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우리고장을 더욱 활기차게 가꾸어 주신 대산 청년회의소 가족 여러분께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 헌신하는 봉사를 통해 삶의 참된 보람을 찾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젊은 패기와 봉사의 마음으로 정치와 종파를 초월하고, 私보다는 公을 앞세우면서 오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가 없는 땀방울을 흘려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를 이끌고 지탱해 온 여러분들의 선배와 지금도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JC 가족이 있기에 우리사회가 이만큼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산 JC회원 모두가 사심없이 펼치는 건강하고 활기찬 봉사활동과 함께 신뢰속에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에서 우리지역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음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대산 JC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에게 그 어느해 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지방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최대 핵심과제인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본격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충남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견고한 주춧돌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지도력과 봉사정신, 용기를 함께하여 변화하는 내일을 향해 도전해 주실 때 우리사회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사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대산 JC 창립 12주년과 특우회 6주년 행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 상호간의 우정도 더욱 돈독히 다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따뜻한 향토애와 이웃사랑 정신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면서, 대산 JC와 특우회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JC 가족 여러분과 특우회원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삶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

▸ 당진소방서 개서식 · 2004. 2. 11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복구입니다.

먼저, 당진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당진 소방서』 개서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민들의 안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 · 다양화함에 따라 재해나 사고발생 규모가 크고, 그 피해역시 막대한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지구촌

전체가 미처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재해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 밤市를 강타한 강진에 의해 사상 유례없는 인류 대 참사가 발생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몇백년만의 대 홍수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재작년에는 중국의 양쯔강이 범람하여 수백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발생이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입은 피해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으며,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 가스폭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는 우리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은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예고 없이 불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주의와 노력을 다 함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조직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소방방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화재로부터의 피해방지 뿐만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목숨도 119활동을 통해 구조해 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참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진소방서 발족을 계기로 이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봉사기관으로서 최고의 소방 써비스를 제공하고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소망이 어긋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출발선상에서 다지는 각오와 다짐이 주민들의 소중한 삶과 터전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오신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과 오늘 개서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시작

▸ 청양대학 학위 수여식 · 2004. 2. 13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학문의 도량에서 정진해온 대학생활을 매듭짓고, 영광의 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무한한 애정과 온갖 정성을 다해 오신 『심대평』 도지사님, 『서재문』 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기까지 자녀 뒷바라지에 아낌없이 힘써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졸업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은 새로운 꿈을 안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청정고을 이곳 상아탑에서 인고의 노력으로 이어진

여러분의 땀과 면학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꽃을 피우기 위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근원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지역간 고른 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시대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리 충남은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확정을 계기로 밝고 힘찬 새로운 충남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사회환경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개척정신으로 어떠한 도전에도 맞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한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기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앞길에는 영광도 있고 축복도 있겠지만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도전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세계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속에서 꿈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취적인 기상과 어떤 여건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학부모를 비롯한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졸업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큰 꿈을 가지고 변화를 준비해온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동량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과정인 인생의 무대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공들여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에도 항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사회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깨를 당당히 펴고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충남도립 청양대학 졸업생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한번 축하하면서, 청양대학의 무한한 번영과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의식의 생활화

▸ 부석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 2004. 2. 26

친애하는 부석면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먼저, 부석면 자율방범대의 힘찬 출발과 함께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부석면 자율방범대를 훌륭히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정성현』 전임 자율방범대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속에 제8대 자율방범대장으로 취임하시는 『박경철』 대장님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지역을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고장으로 가꾸어 오신 부석면 자율방범대 가족 여러분께도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뜨거운 열정과 스스로 우러나는 봉사정신으로 범죄 없는 밝은 지역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다 맑고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선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노인을 받들고 공경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킴으로써 근원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부석면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범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서 사회 안정의 위험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물질만을 추구하고 인명을 경시한 납치와 살인, 은행강도, 성폭력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 자녀와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어린 학생이나 젊은 여성을 노린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여러분들이 펼치는 방범활동이야 말로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실천을 촉구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첩경이 되고,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생명이 존중되고 지역안정이 곧 주민복지로 연결되는 안전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범죄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 어깨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활력이 달려 있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슴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넉넉함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역 안정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향토애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활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부석면 자율방범대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사회를 여는 선도자

▸ 충남지구 JC 회장단 이·취임식 · 2004. 2. 27

친애하는 충남지구 JC 회원 여러분!

먼저, 충남지구 JC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면서 2004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지구 JC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남지구 JC를 훌륭히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김기준』 전임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속에 제35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강신욱』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서산시의회의장님, 『이청준』 서산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우리고장을 더욱 활기차게 가꾸어 주신 충남지구 JC 가족 여러분께도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숭고한 JC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찾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뜨거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가없는 땀방울을 흘려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충남지구 JC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시장개방과 장기적인 내수 침체속에 이른바 신 3중고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 인한 불안심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러분의 청년정신을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지난날 가난에 찌든 조국을 근대화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새 희망을 불어넣은 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배들의 고귀한 뜻을 본받고,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는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데에도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전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펼쳐오신 봉사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여 밝은 미래 사회를 열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서로간의 화합을 다지고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더 큰 봉사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향토애와 지역발전을 위한 값진 헌신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충남지구 JC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

▸ 2004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우승 환영식 · 2004. 3. 15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어제, 서울에서 열린 2004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당당히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여 충남의 명예를 떨치고 돌아온 『이은정』 선수와 『유의석』 지도자를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충남육상팀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선수를 뒷바라지 해 오신 부모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라톤이란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으로 강인한 의지와 투혼,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승부근성을 요구하는 운동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정』 선수는 여성의 몸으로 세계마라톤에 도전하여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으로 풀코스 출전 세 번째 경기만에

당당한 우승을 거두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선수가 어제 충남의 혼을 담고 힘차게 달리는 모습에서 우리 도민 모두는 가슴 뿌듯한 긍지를 느꼈고, 『충남도청』이란 글씨가 뚜렷한 가슴으로 결승테이프를 끊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며 200만 도민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같은 우승은 100년만의 폭설피해로 인해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재난극복의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갚진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던 초등학교 소녀에서, 세계의 마라토너로 우뚝 성장한 『이은정』 선수야 말로 은근과 끈기의 자랑스런 충남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새로운 각오로 더 많은 노력을 쌓고 힘을 기울여 더욱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영광의 금메달을 거머쥠으로써 온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선수와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목 도모와 권익신장을 기대

▸ 충남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3기 출범식 및
제4차 정기총회 · 2004. 3. 19

친애하는 충남도청 직장협의회 회원여러분!

먼저, 충남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3기 출범식 및 제4차 정기총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복회』 전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 축복속에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양승록』 신임 회장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청 직장협의회 회원 모두가 선정한 올해의 충청남도 최고 공무원상을 수상하신 네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도를 찾아주신 각 시 · 도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200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셨습니다.

년초에 불어닥친 조류독감 파동시에는 닭고기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섬으로써 양계 농가에 재기의 희망을 불어 넣었으며,

지난 5일의 사상 유래 없는 폭설 피해시에는 휴일도 반납하고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림으로써,

깊은 시름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던 농민들에게 불굴의 의지를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야 말로 참 공직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장내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 보장을 위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가는 전단계의 조직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다른 조직체 구성원과 달리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바른 행동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이며, 도민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고의 틀을 바꾸는 등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직장협의회 운영으로 공무원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명랑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위해 우리 도를 찾아 주신 전국의 시·도 직장협의회장단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충남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스포츠

▸ 제28회 대산친목단체연합회 체육대회 · 2004. 4. 18

친애하는 대산읍 친목단체연합회 회원여러분!

먼저, 대산읍 친목단체연합회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처럼 성대한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결식아동 돕기 운동에도 적극 앞장서 주신『김선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문석호』국회의원님,『조규선』서산시장님,『윤찬구』서산시의회의장님,『이청준』서산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는 언제나 우리 생활에 건강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긴장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체육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스물여덟번째를 맞는 이 대회가 해를 거듭 할수록 지역 선후배간 우의와 결속을 다지면서, 체육에 대한 저변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력있는 내일을 위하여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회원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체육대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견없는 사회를

▸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2004. 4. 20

친애하는 장애인 여러분!

새봄의 정취를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스물네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건휘』 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 각 단체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곁에서 항상 재활의지를 북돋우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최근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복지 수준이나 시설면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생산 활동이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국한되어 있었으나,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각종 생산활동이 자동화되어 있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상 생활의 필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체적 불편은 결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그 어떤 제약 요인도 될 수 없으며, 사회적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과 불굴의 의지, 뛰어난 창의력을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지도자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하여 악성(樂聖)으로 불리는 베토벤, 과학자 스티븐 호킹박사, 사회복지가로 명성을 얻은 헬렌켈러, 한국화의 대가 운보 김기창 화백도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

▸ 사립 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임시총회 · 2004. 4. 23

봄의 정취를 더해가는 희망의 계절에 우리고장 사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충청남도회 임시총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심현직』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사교육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용기』 중앙협의회 회장님, 『우형식』 부교육감님, 『양기택』 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나라는 융성하였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빼고는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교육은 공교육과 더불어 국가 교육의 양대 축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사교육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양어깨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동량과,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내고 계십니다.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총회를 통해 우리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높은 경륜과 학덕을 바탕으로 사교육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닮은 마라톤

▸ 제3회 서산 하프마라톤 대회 · 2004. 4. 25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전국의 마라토너 여러분!

먼저, 제3회 서산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처럼 성대한 대회를 준비해 주신 『강춘식』 서산시생활체육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문석호』 국회의원님,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서산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으로 강인한 의지와 투혼, 그리고 최후의 목표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인내심을 요구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달릴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를 참고 달리고 난후에는 성취감을 갖게되어 우리의 삶과도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마라톤은 지난 3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2004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이은정』 선수의 환영행사를 겸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의 딸 이은정 선수가 우리 고장을 더 많이 알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라토너로서 오는 8월 아테네 올림픽에서 영광의 월계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격려를 보냅시다.

아무쪼록 오늘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서산 시민들이 우정을 나누며 함께 달리는 축제를 통해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와 국민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

▸ 서산명지중학교 개교식 · 2004. 4. 29

사랑하는 명지중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을 비롯한 명지중학교 가족과 내빈 여러분!

푸르른 신록이 빛을 더하는 4월의 아름다운 날을 맞아 미래의 명문, 서산 명지중학교 개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쁨을 우리지역 주민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먼저 학교 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道 교육청 최청송 교육국장님』과 『최강엽 서산교육장님』, 『윤찬구 서산시의회의장님』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서산 대산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지중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조항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의 명문학교로 발전하는 첫 걸음을 띠는 오늘, 몇가지 당부의 말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런 명지중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미래의 밝은 꿈이요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으름을 뒤로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튼튼한 실력을 쌓고, 정직하고 성실한 품성을 길러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해야 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고장이 다른 어느 도시와의 경쟁에서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원대한 꿈과 용기를 갖고, 굳센 의지를 길러 미래의 보배로운 주인공이 되어, 충남을 대표하는 명문중학교로 길이 빛나는 전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과 내빈 여러분께서도 우리학생들이 국가와 사회를 떠받치는 훌륭한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교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귀한 자녀를 입학시켜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가슴부푼 기대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명지중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처럼 큰 포부를

▸ 서산대진초등학교 개교식 · 2004. 4. 29

신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오늘, 대진초등학교의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린 새싹들의 배움터를 마련하기 위해 진력해 오신 김광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과 도교육청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강엽 서산 교육장님』, 『도교육청 최청송 교육국장님』,

『윤찬구 서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학부모님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고맙고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개교하는 대진초등학교는 대산의 진흥을 기할 명당에 자리잡은 학교로 훌륭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700여명의 신입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믿음직한 몸가짐은 이를 충분히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진초등학교는 중화학공업의 상징인 『대산3사』에 인근하고 있고, 학부모님들 또한 그동안 나라발전에 헌신해 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학교에서 배움의 길을 새롭게 하는 어린 새싹들 또한 학부모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히 자라서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리라 믿습니다.

훌륭하신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어린 새싹들이 부푼 희망과 미래를 향한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고 부모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큰 꿈과 새 희망을 갖고 항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바다에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넓은 포부와 포용력을 갖고 여러분 모두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진초등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한마당 축제

▸ 제5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 2004. 5. 1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오늘, 제5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고장 역사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이처럼 성대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신상찬』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문석호』 국회의원님,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서산시의회의장님, 『임헌용』 충청남도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의 자랑인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지난 2001년 국가지정 전통 민속대표 축제로 지정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역사와 향토색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축제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축제로 전통과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체험 축제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관광산업 육성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수준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그 뿌리가 깊을수록 보다 풍성하고 창조적인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얼마나 앞서 개발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 진흥과 위상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향기로운 봄날에 펼쳐지는 이번 축제행사를 통해 우리 서산시민은 물론,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사를 좌우하는 지식과 정보

▸ 2004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2004. 5. 6

먼저, 2004년 영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장학생 여러분!

그동안 남다른 노력과 근면함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영예의 장학생으로 선발된데 대하여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동량을 육성하는데 온갖 정성과 힘을 기울여 주신『심대평』도지사님과 『김수진』충청남도장학회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남다른 열정으로 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바른길로 인도해 오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스피드와 지식·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인류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힘이 세계사를 바꾸는 상황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널리 양성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응한 충청남도장학회의 영재육성 장학사업이야말로 온 도민의 소망을 한데 모으는 일이며,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시의 적절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성적과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의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뜻을 세우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학업에 더욱 정진해 나간다면, 어떠한 난관에 부딪친다 해도 창의적인

의지와 용기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재능이 충분한 충남의 인재들로서, 21세기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거목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장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 2004. 5. 11

친애하는 선수단 여러분!

우리도를 대표하여 제2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훈련에 임해 주신 선수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대회참가 준비와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힘써주신 『이건휘』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가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깃들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이번 체전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도를 빛내 주시는 한편,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성취감과 영광을 거머쥐는 기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도내 7만 5천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대회 참가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선하는 날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한 백제문화

▸ 백제역사재현단지 능사 5층 목탑 탑지 봉안식 · 2004. 5. 13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오늘,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이곳에서 『능사 5층 목탑의 탑지 봉안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그동안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에 열정을 쏟아오신 『심대평』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정완기』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김학원』 국회의원님과 『김무환』 부여군수님, 『신재덕』 부여군의회의장님, 『진 각』 마곡사 주지스님,

그리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 · 재현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신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자문위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 · 단체장님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묻혀진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고 이를 재현하여,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사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이야 말로 백제인들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선인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백제금동대향로가 출토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능산리 사지 5층 목탑을 원형대로 이곳에 재현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백제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정립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도 하루빨리 완공되어 백제인의 생활상과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교육공간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온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

▸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 2004. 5. 14

먼저, 뜻깊은 제2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정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생님들과 제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애례』 충청남도 새마을부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박종순』 예산군수님, 『한창숙』 충청남도 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들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을 생활 예절로 삼으면서 선생님을 존경해 왔으며, '군사부 일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 일각에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사라지고, 마땅히 가져야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마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옛 성현의 말씀대로 군자의 삼락중 하나인『득천하이 영재교육지야(得天下而 英才教育之也)』를 몸소 실천해 오신 선생님들이야 말로 마땅히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발전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정신문화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정신적 바탕이 되고 있는 스승존경 운동을 생활화하는데 우리 다함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확산되고 결실을 거둘 때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변함없는 열의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속의 문화체육

▸ 제13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문화 축제 · 2004. 5. 15

친애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

먼저, 생활체육동호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제13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대한 대회를 준비해 주신 『최희택』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시장 · 군수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화합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의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명예나 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우선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를 활용한 체력 증진과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통한 의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려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속에서 오는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생활체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패를 떠나 건강을 다지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생활체육문화 축제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생활체육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고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축제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가 되고, 도민 모두가 호흡을 함께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기쁨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현대오일뱅크 청정연료사업 기공식 · 2004. 5. 17

현대오일뱅크 가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지역의 경제 발전을 앞당겨 줄 현대오일뱅크 청정연료유 생산 공장 기공식에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하며 새로운 기술로 친환경 고품질 청정연료유 생산 공장을 착공하여 주신 『서영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지역의 한사람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규선』 서산시장님과 『곽한호』 대산 해양수산청장님, 『이지송』 현대건설사장님, 『방정섭』 현대엔지니어링 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산업은 인류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무공해 산업이 대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무공해를 지향하면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그동안 국내 최초로 중질유 분해시설을 건설하여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은 물론,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현대오일뱅크 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 황 함량을 저감시키는 청정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2천 1백여억원을 투자하여 또 하나의 공장을 짓는 기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장이 최고의 시설, 최고의 품질,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환율급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오일뱅크의 기공식은 더욱 의미가 크며, 기대 또한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현대오일뱅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충남체육의 쾌거

▸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 2004. 5. 17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우리 선수단은 이번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으로 우리 도에 큰 영광을 안겨준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선수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오늘의 값진 승리를 일궈낸 『이건휘』 단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가족, 그리고 체육관계자 여러분께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이번 체전에서 여러분들이 획득한 메달은 선수 개개인의 영광은 물론 우리 충남의 위상을 전국에 떨친 값진 것이었습니다.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다부진 의지 앞에 신체의 불편함은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딛고 영예의 3관왕을 차지한 김순정 선수와 김근일 선수, 그리고 유재연, 정은영, 박우철 선수를 비롯하여 2관왕의 영예를 안으신 다섯명의 선수와 그밖의 입상 선수들,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선수들 모두가 200만 도민들의 가슴에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승리를 통해 도내 7만 5천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으며, 200만 도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 중 몇 명은 국가대표로서 오는 9월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빛나는 승리를 발판으로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영광의 금메달을 거머쥠으로써 온 국민들에게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트에 푸른 꿈을 싣고

▸ 제4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2004. 5. 29

선수와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곳 보령에서 제4회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이번대회 참가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해 주신 『이승재』 해양경찰청장님과 『박순호』 대한요트협회 회장님, 『김상철』 태안해양경찰서장님, 『이규만』 충남요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보령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이시우』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해양시대로서 요트는 바람을 추진력으로 물살을 가르며 수상을 달리는 경기로 진취적인 기상과 모험심을

길러주고, 스릴과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해양 스포츠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레저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트는 복잡한 현대 생활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적합한 레저스포츠라고 합니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요트 경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양정신을 심어주고,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서해 앞바다에서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며,

승패를 떠난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상호간의 우정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가 아름다운 대천바다 만큼 더욱 빛나고 활기찬 대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장에 머무시는 동안 편안하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발전을 위해 빛을 남기고

▸ 충남발전연구원 제4대 오제직원장 퇴임식 · 2004. 5. 31

존경하는 『오제직』 원장님!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충남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신 『오제직』 충남발전연구원장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원장님께서는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평생을 바쳐오신 분이시며, 지난 2003년에는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시어, 높은 덕망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연구원을 훌륭히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원장님께서는 재직중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유성 이전과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을 분리 발족 시키는 등 실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충남발전연구원이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가는 싱크 탱크

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각종 현안들을 해결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원장님께서 이임하시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비록 또 다른 선택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을 떠나시지만 충남발전을 위한 마음은 늘 함께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쌓아오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앞으로 더욱 보람있는 삶을 위한 바탕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새로 내딛는 『오제직』 원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 2004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004. 6. 9

존경하는 충남발전협의회 회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초하의 계절 6월에 2004년도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신 『이병하』 충남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자문위원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도민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도에 설립된

이래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지역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단체라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해에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치과의료 봉사활동 및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등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 모두가 값진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참여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님과 협의회원님 여러분!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역의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식견 높은 사고와 지혜가 밑거름이 되고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생각하고 사회 전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펼쳐 오신 수범적인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더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회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남발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속에 빛나는 충남 기능인

▸ 2004 충청남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 2004. 6. 9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건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

6월의 신록이 더해가는 오늘, 2004년도 충청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능과 기술을 연마하여 이번 대회에 당당하게 출전하신 선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데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체의 장애는 결코 인생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미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난 기능인으로서 명실상부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가슴속에 품고 있는 포부를 널리 펼치는 한편, 세계속에 우뚝 서는 기능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고,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밝고 건강한 지역의 파수꾼

▸ 동부지역 생활안정협의회 창립총회 · 2004. 6. 11

존경하는 생활안정협의회 회원 여러분!

우리 지역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동부지역 생활안정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손과 발이 되기를 자청하여 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협의회를 창단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성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송광현』 동부지구대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생활안정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역안정과 주민복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물질만능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이기주의가 표출되고, 전통과 도덕을 저버리는 행위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희생정신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밝은 빛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지역과 이웃을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의 활동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써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 전체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회를 통해서 생활안정협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취적인 기상과 청년정신

▸ 제35차 충남지구 JC 회원대회 · 2004. 6. 12

존경하는 충남지구 JC 회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초하의 계절 6월에 회원상호간의 결속을 다지는 제35차 충남지구 JC 회원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처럼 성대한 대회를 마련해 주신 『강신욱』 충남지구 청년회의소 회장님과 『김기환』 온양청년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복기왕』 국회의원님, 『박상용』 한국 JC 중앙회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숭고한 JC 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지도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참된

보람을 찾는 분들이십니다.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유대를 같이 하면서 봉사의 땀방울을 흘려오신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시는 JC 회원 여러분!

'국가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래는 바로 여러분들의 양 어깨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청년 정신으로 우리 고장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얼마전까지 여러분과 같이 JC 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특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과 활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쌓아오신 경륜과 이상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승화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 전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펼쳐 오신 봉사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남지구 JC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 사회

▸ 서산시 방범가족 한마음 대회 · 2004. 6. 13

존경하는 서산시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짙푸른 6월의 녹음속에서 서산시 방범가족 한마음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이처럼 성대한 대회를 마련해 주신 『김영석』 연합대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문석호』국회의원님,『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서산시의회의장님, 『이청준』서산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웃사랑 정신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오셨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물질만능주의가 확산되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희생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빛과 소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이웃을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모두로 부터 사랑받는 순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펼쳐주시는 방범활동이야 말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율방범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된 범죄예방 활동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원 상호간에도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새마을 운동

▸ 2004 도의 새마을 운동 촉진대회 · 2004. 6. 18

존경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산자수려한 이곳 금산에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04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오신『한창숙』충청남도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과 각 시·군지회장님, 그리고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심대평』도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군수님, 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원 재활용운동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의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우리 민족이 세계속에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위대한 운동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남고, 역사속에 영구히 빛날 것입니다.

조국 근대화를 앞당긴 새마을운동은 우리사회의 오랜 구습과 나태를 바로잡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신을 깃들게 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개척정신 하나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일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새마을 운동을 실천해 오신 지도자분들이 있었기에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공로가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선배지도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대동단결할 수 있었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값진 경험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회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범도민 새마을 정신문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복원되는 생태계

▸ 2004년도 참게 종묘 방류행사 · 2004. 6. 19

우리 충남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수역인 이곳 청양 지천에서 어린 참게 방류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참게 종묘 방류행사는 사라져 가는 내수면 특산어족 자원을 되살리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부터 어린 참게 종묘를 금강권에 방류해 온 이래, 우리지역이 참게 서식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지닌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환경을 보전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개발이나 소비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생명의 원천을 파괴하는 행위로 마땅히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자연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충청인의 젓줄인 금강이 더욱 맑아지고, 깨끗해져 각종 어족자원의 생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 및 청양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 제3회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축제 · 2004. 6. 19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푸르름속에서 제3회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고장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산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성대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최기환』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문석호』 국회의원님과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구』 서산시 의회의장님, 『김인환』 팔봉면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팔봉산은 우리고장의 명산으로서 일찍부터 아름다운 풍광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으며, 팔봉면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곳 일대에서 감자를 비롯한 청정 농산물을 재배해 왔습니다.

이지역의 이미지와 특색을 살린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 축제는 우리 농촌의 생활상과 자연을 되돌아 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추억을 되살리게 하고, 어린이에게는 자연교육의 장으로써 영농현장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테마를 소재로한 문화관광 체험 축제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감자농사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21세기는 문화관광 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얼마나 앞서 개발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친환경농업을 관광자원화하여 실시되는 이번 축제야 말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도 진기한 경험을 선사하게 되고, 지역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농촌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 서산와이즈맨 회장단 이·취임식 · 2004. 6. 26

여러분,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한국서부지구 충남서지방 서산클럽 회장단 이·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숭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국제 와이즈맨 서산클럽을 훌륭히 이끌어 오시고, 오늘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문창희』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큰 기대와 축복속에서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임덕재』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제 와이즈맨 한국서부지구 충남서지방 박효준 지방장님과 문석호 국회의원님, 조규선 서산시장님, 윤찬규 서산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와이즈맨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친교, 교양,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는데 앞장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양지보다는 음지를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인정넘치는 따뜻한 손길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기쁨은 함께 하면 두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화합을 더욱 다지고, 한차원 도약한 가운데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선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향토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값진 봉사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국제 와이즈맨 서산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위한 노력

▸ 경제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 · 2004. 6. 29

오늘, 우리지역 경제관련 단체장님과 기업인, 상공인등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하신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마련하는데 애써주신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리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IT관련 산업을 위주로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루고 있으며, 내수의 위축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고유가의 지속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요인과 노사갈등, 소비위축 등 국내요인으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 부문에서도 가계의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여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하반기 경제성장도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증가세의 둔화로 상반기 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원인에는 세계 경제의 영향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지는 간담회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실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지역 경제를 선도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국제교류 활동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 한 · 일 친선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 2003. 1. 22

존경하는 일 · 한 친선협회 카와즈 류스케 회장님, 무궁화회 치쿠시 한조 회장님, 쿠로다 부이치로 縣부지사님, 한일우호 현의회 의원연맹 야쓰나미 치코우 회장님, 駐 후쿠오카 총영사관 조성용 총영사님, 그리고 친선협회와 민간단체를 비롯한 道 · 縣 귀빈 여러분!

오늘, 일 · 한 친선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道 방문단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큰 기쁨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日 · 韓 친선협회 40년 역사의 우호협력과 선린의 성과는 兩國은 물론, 兩 道 · 縣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역량을 배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兩國에 우호 선린의 알찬 토양을 제공해 주신 日 · 韓 친선협회 회원님을 비롯한 민간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兩 道·縣은 '一衣帶水'의 현해탄을 끼고 있는 정다운 이웃입니다.

지구촌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가고 경제블럭은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가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민주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 상호간 교류의 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있음을 볼 때,

兩 道·縣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정례화 되어가는 아름다운 연대를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는데, 우리 서로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本人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을 계기로 知己之友의 情을 다지며 그간 兩道·縣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류협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일·한 친선협회 카와즈 류스케 회장님, 구마모토현 무궁화회 치쿠시 한조 회장님, 그리고 일·한 친선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동반자

▸ 충청남도 · 구마모토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 · 2003. 1. 23

존경하는 시오타니 요시코 구마모토 縣지사님과 심대평 도지사님, 아라끼 카쯔유끼 縣의회 의장님, 그리고 兩 道 · 縣의 귀빈 여러분!

오늘, 이곳 불의 都市 구마모토에서 日本國 구마모토현과 大韓民國 충청남도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국 구마모토縣과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이 순간을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道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3년, 두 지방정부 정상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맺어진 선린우호관계는 어느덧 20년이 흘러 성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兩 道와 縣간의 姉妹의 관계는 강산이 두 번 바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마모토현과 우리 충청남도는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 온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지방정부가 가까워지게 된 것은 추구하는 지향점과 역사적 배경이 유사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한 교류 협력의 인연을 맺을 것이며, 이 우정 어린 약속이 兩 지방정부와 의회의 번영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나아가서 인류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꽃피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오타니 요시코 구마모토 縣지사님과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역은 물론 인종과 문화까지도 급속하게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국민과도 이웃하며 가족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지구촌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 공동체 시대에 일찍이 兩 지역의 지방정부가 현해탄을 가로지르는 우정의 가교를 놓게 된 것은 정말 뜻깊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道와 구마모토현간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는 그 무엇보다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충남과 구마모토현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효율적으로 접목해서 兩 지역의 교류가 극대화되도록,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마모토縣지사님과 충청남도지사님, 그리고 함께하신 兩 道·縣의 귀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국 구마모토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

▸ 구마모토현의회 주최 환영오찬 인사 · 2003. 1. 23

존경하는 다까노 세이치 縣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쿠로다 부이치로 縣부지사님, 조성용 후쿠오카총영사님 그리고 兩 道·縣의 귀빈 여러분!

먼저, 우리 道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오찬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충청남도에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신 다까노 세이치 縣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구마모토현과 충청남도는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곳 구마모토 주민들을 진정한 마음의 벗으로 생각하고 있고, 兩 지역 주민들 모두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의 비전과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곳 구마모토현의 방문을 통해 매우 진한 감동을 받았으며,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증진이 兩지역의 공동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우리 충청남도는 각자의 특징이 있으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매결연 20주년은 이와 같은 兩 지역의 장점을 결합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시키면서 지역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매결연 20년의 역사가 兩 지역의 우호증진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방문단 일행을 뜨겁게 환대해 주신 구마모토縣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구마모토縣의 무궁한 발전과 타카노 세이치 縣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神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지기의 친구 구마모토현

▸ 구마모토현지사 주최 환영만찬 인사 · 2003. 1. 23

존경하는 시오타니 요시코 縣지사님, 다까노 세이치 縣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兩 道 · 縣의 귀빈 여러분!

먼저, 우리 충청남도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충청남도에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신 시오타니 요시코 縣지사님을 비롯한 구마모토縣 주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인간생활은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사람들의 생각입니다.

60억 세계인구 중에서 귀빈 여러분과 한국의 제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인연이 兩 지역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20년 지기의 다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처음 뵙는데도 지사님과 귀빈 여러분이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정답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은 물론, 지역간 단체간을 막론하고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間의 자매결연 20년의 역사는 양 지역에 더욱 유익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두 지역은 상호방문을 계기로 우호증진과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활발한 교류가 매년 확대되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두 지역간의 사회, 문화 등 교류확대와 선린우호관계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구마모토현과 충청남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두 지역의 역량이 국가와 세계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兩 지역의 우호증진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기원하면서

우리 방문단 일행을 뜨겁게 환대해 주신 구마모토縣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의 21세기를 함께 할 구마모토현의 무궁한 발전과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神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는 하나

▸ 허베이성방문단 의장님 주최 환영오찬 · 2004. 4. 6

존경하는 『바이커 밍』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원회 주임님,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

새 봄의 정취를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양 지역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우리도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호교류 협의서 체결에 이어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금전에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대한민국 충청남도 의회간에 아주 뜻깊은 다짐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양 지방정부 의회간에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서로간에 더욱 정겨운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허베이성 대표단 여러분!

지난 '94년 양 지방 정부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증진은 물론 양 국가간에도 많은 발전과 통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문화를 이해하시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즈음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중국 상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요나 영화, 드라마를 즐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양 지역은 밝은 미래를 향해 세계속에 동반자로써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여러분의 방문을 통해서 서로간의 마음을 더욱 넓혀 나가고 아름다운 우정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우리고장에 머무시는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한국과 충청남도를 이해 하시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길을 오셔서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해 주신 대표단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씨에 씨에(감사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장

▸ 중국허베이성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 · 2004. 4. 6

존경하는 『바이커 밍』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충청남도지사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헤베이성과 대한민국 충청남도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도를 방문해 주신 허베이성 대표단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과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양 지역간 우호의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어느덧 10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 도·성은 강산도 바뀔 수 있는 긴 세월을 통하여 변함없는 우정과 신뢰를 다져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두 지역은 서로를 가깝게 느끼며 서로의 삶과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온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더욱 진일보하고 의미있는 일은 조금전에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대한민국 충청남도 의회간에 우호교류 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데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양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양 지역간 교류와 협력의 인연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오늘의 우정어린 약속은 양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문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촌 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개방과 협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교역국으로 부상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오늘을 이루어 왔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밝은 미래를 우리는 얼마든지 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 지방정부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양 지역의 끈끈한 결속과 유대를 재충전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과 대한민국충청남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허베이성 방문단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씨에 씨에(감사합니다.)

第7代 忠淸南道議會 前半期

李福求議長 演說文集

(2002年7月9日 ~ 2004年7月8日)

발행일 - 2004년 12월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인쇄처 - 중부인쇄기획